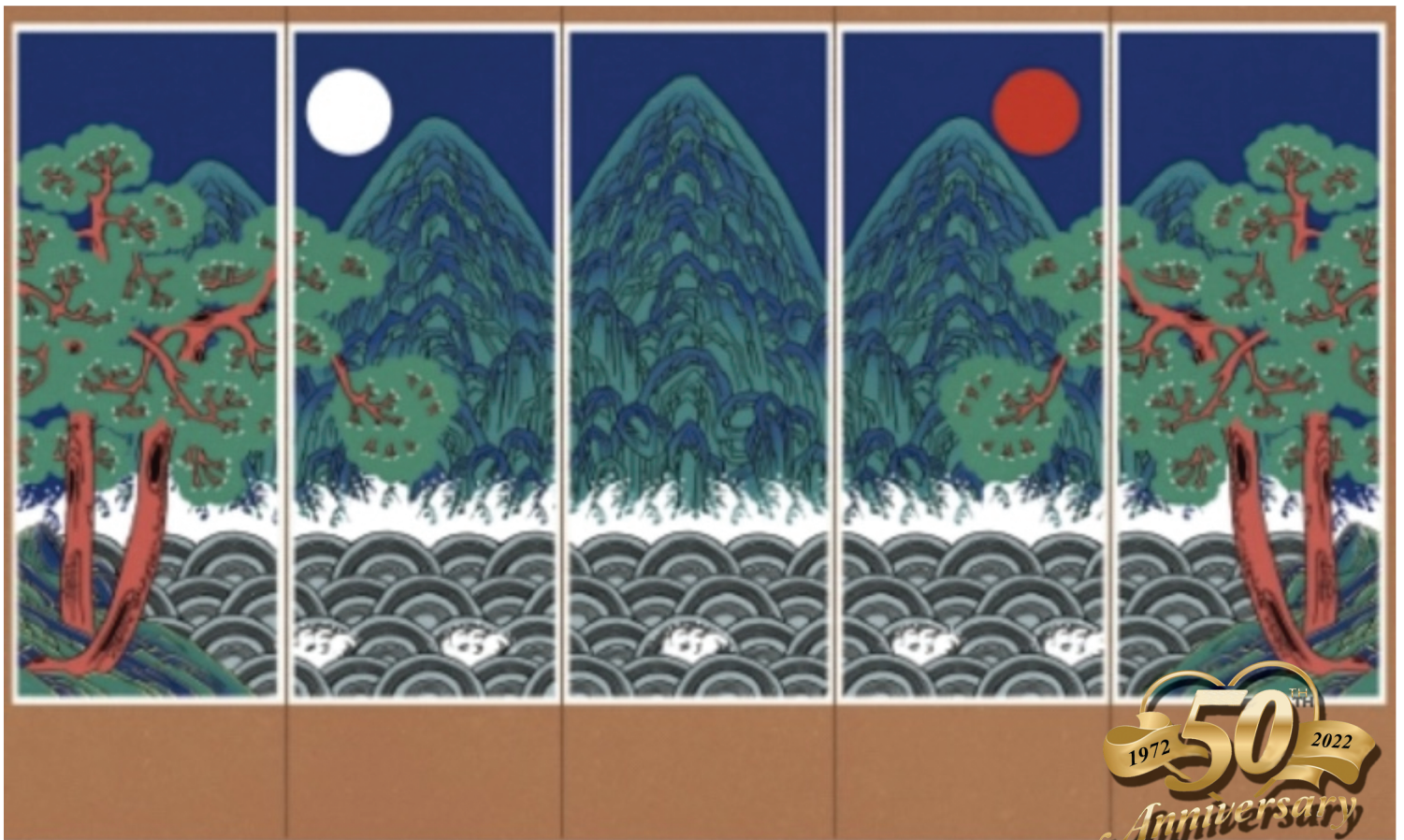


세종

개교 50주년 기념 문집 제36호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교훈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자 세종 꿈나무



세종학교 교가

조규홍 작사
박계훈 작곡

1. 대 - 한 의 어 린 이 들 이 - 곳 에 모 여 들 어 우 -
2. 너 - 와 나 손 을 잡 고 하 - 늘 을 지 고 이 어 한 -

리 를 길 - 러 내 어 문 화 오 천 년 기 리 빛 내 고 오 -
국 을 미 - 국 속 에 알 차 게 길 러 향 기 를 내 고 오 -

우 리 는 미 쉼 간 - 에 자 람 스 런 세 - 종 의 얼 빛

내 리 세 종 학 교 빛 - 내 리 세 종 학 교

세종학교 교육목적

재미 한국인의 후예들로 하여금 성숙하고 창조적인 삶을 향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우리 겨레의 순수한 전통과 우수한 정신문화를 접하도록 교육시키며 이를 통하여 세종의 일을 배우고 받아들여 전통 있는 민족의 긍지를 갖추도록 한다.

세종학교 각종행사

- 학생 특별활동:** 친구 클럽, K-rise 클럽, 세종뉴스레터클럽, 프로젝트-K 클럽을 통해 학생들은 취미에 맞는 클럽을 찾아 참여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강연 및 연수회:** 매 학기 교내 교사 연수회, 미시간 한국학교 협의회와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등 대외적인 강연과 연수회를 실시하고, 참가하여 보다 진보된 교육의 풍토를 세종학교 교사들의 수업 다양화에도 힘쓰고 있다.
- 각종행사:** 한국어 이야기 대회와 동요 부르기 대회, 글짓기 대회, 역사 문화 골든벨 퀴즈 등을 개최하여 미시간 주최의 여러 대회에서 각종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교내에서도 다양한 대회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 태극마을 위문 공연:** 1990년부터 새해 1월이면 새해 맞이 잔치를 하여 연장자들이 사시는 아파트인 태극마을을 방문하여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고 위문 공연도 준비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세종문집:** 1986년부터 발간되어 해마다 학생 작품 등이 실려 나오고 15, 20, 25, 30주년 특집호가 발간되었다.
- 세종예술제:** 1972년 6월부터 한 학년이 끝나는 6월에 학예 발표회식으로 학부모들을 모시고 세종예술제를 열고 있다.
- 종, 졸업식 및 야유회:**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수료증, 졸업증, 학습보고서, 상장을 수여하며 세종문집을 배부한다. 식후 야유회를 개최하며 학부모님을 비롯 하여 인근의 입양아 가족도 초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장 김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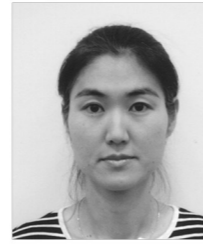
토끼반 박진희



나비반 김기원



개나리반 박현우



매화반 이윤경



난초반 김세정



무궁화반 김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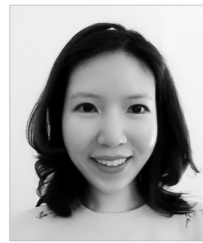
장미반 윤희란



해반 윤경혜



솔반 오승용



달반 박혜인



별반 최수나



하늘반 서나영



종달새반 이재선



음악 김예미



태권도 이영화



사물놀이 Torey Powers



재무 양승렬

인사말6

축 사7

토끼반14

나비반18

개나리반22

매화반26

난초반30

무궁화반36

장미반40

해 반45

솔 반59

달 반52

별 반56

하늘반62

졸업생의 글69

음악72

세종학생들의 특별활동74

세종행사들78

특별 좌담회82

특집 설문조사86

세종 발자취105

세종 연혁120

발행인: 김선미
 편집인: 박현우, 한수경
 발행일: 2022년 5월
 발행처: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며



교장 김선미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디트로이트 세종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72년 3월 4일 미국 전체로 보면 그리 크지 않은 주인데다가 한인 숫자도 그리 많지 않은 미시간주에 디트로이트 세종학교가 생겨 어느덧 개교 50주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교육에 일찍 관심을 가진 분들의 큰 뜻이 이뤄낸 결과로 디트로이트 세종학교만이 아닌 여러분들의 크나큰 자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에 한인 이민 역사가 시작되고 근대적 한국학교가 1970년 하와이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열었고 2년 후 미시간주에서 디트로이트 세종학교가 개교를 했다는 것과 그 이후 쉽 없이 학교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되었다는 것은 한국학교 역사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에 다녔고 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한 한국계 미국인으로 성장하여 미국 사회 구성 구성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봉사정신과 열정 가득한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디트로이트 세종학교를 통하여 훌륭한 한인 후세를 키우는데 그 능력을 발휘해 오셨습니다.

학부모님과 세종학교를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오늘 디트로이트 세종학교가 50년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 한인 등 그 무엇 하나도 중요함에서 뒤쳐지지 않고 그 긴 세월 모든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오늘날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이하게 하였고 모두 함께 맘껏 이날을 축하할 수 있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에 애정을 주신 분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고 계시고 지금 학교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그 마음을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디트로이트 세종학교가 가고자 하는 길은 50년을 맞이함에 안주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시대의 변화와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한인 후세를 양성해 내는 자랑스러운 한인 후세 뿌리 교육기관으로 영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에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디트로이트 세종학교는 오늘도 훌륭한 한인 후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랄 우리 한인 후세의 보금자리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해 봅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개교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 김정환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의 50주년과 기념 역사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디트로이트 세종학교는 1972년 개교 이래 우리의 문화와 언어, 예와 얼을 전수함으로써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모국을 잊지 않고 지혜롭게 성장하도록 헌신해 왔습니다. 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역사서 발간을 계기로 디트로이트 세종학교가 한층 더 성장하고 한글과 우리 문화 교육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꾸준히 확대되고 번영해온 한인 사회이지만 세대가 내려오면서도 그 구성원들의 정체성이 유지되어온 것은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와 같은 한글학교가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내 핵심지역의 하나로 광활히 펼쳐진 중서부 지역의 한글학교들은 동포사회 차세대들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중심점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세종학교를 비롯하여 우리 말과 글, 문화를 전하는데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한글학교 교육자 한 분 한 분께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반백년 연륜이 쌓인 디트로이트 세종학교는 미주 지역 여러 한글학교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의 하나로서 탄탄한 교육운영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다수 배출하여 다른 학교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한 두 분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김선미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 동포사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디트로이트 세종학교가 미 중서부 지역, 더 나아가 미국에 있는 한글학교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교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가족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뽕뽕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우리 모두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꿈을 이루고자 힘차게 도약해 가시길 희망합니다. 주시카고총영사관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으며, 한글학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50주년 기념 역사서 발간을 축하드리며, 학교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 김정환
김정환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개교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시카고한국교육원 원장 문상연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개교 50주년과 이를 기념하는 역사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미 한국인의 후예로서 우리 겨레의 순수한 전통과 우수한 정신문화를 접하도록 교육하며 이를 통해 세종의 일을 배우고 받아들여 전통 있는 민족의 긍지를 갖추도록 한다는 교육목적으로.”

1972년 개교한 이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중단 없이 발전하여 50주년을 맞이한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의 역사는 그 자체로 미국 내 한글학교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디트로이트 세종학교를 통해 성장한 많은 인재들이 지역 동포 사회와 미국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많은 기여를 하며 활약하는 모습은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의 모든 분들께서 긍지를 가지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제 우리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로 각광받고 있어 어느 때보다 우리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반세기를 맞은 디트로이트 세종학교는 학교 이름에 걸맞게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받아 미국에 있는 한글학교들을 선도하는 학교로서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직은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번 역사서 발간을 통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를 담아 그간의 성과는 확대시키고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을 짚어봄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개교 50주년과 기념 역사서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동안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의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역대 교장선생님들과 김선미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 관심과 애정을 통해 앞으로 더 성장하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고 시카고 한국 교육원도 우리 재외 동포 교육을 위해 항상 함께 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개교 50주년 축하



미시간 협의회장 박금주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임원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차세대 한인들은 한글학교에서의 배움을 통해 확고한 정체성과 높은 긍지로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디트로이트 세종학교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주류가 아닌 곳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학교와는 다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50년간 창립하고 발전시킨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선생님들 임원진들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발전된 모습으로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한글학교로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교육에서 필요한 인성교육의 장, 정체성 교육의 장으로 한글학교의 역할을 강화하여 나가고 차세대 동포 자녀들의 정체성 교육의 동반자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역할로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향하여 미시간 한국학교 협의회와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선생님들이 앞장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점점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한인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역사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고 이를 책임지고 있는 세종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K-POP과 한식을 중심으로 한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킴으로써, 한국어와 한국 문화 예술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계신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선생님들, 임원진들이 일을 묵묵히 해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봉사해 주신 자랑스러운 세종학교 선생님들과 임원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시간 협의회장 박금주 드림

세종학교의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재미한인자동차산업인협회(KPAI)
회장 현종석

세종학교의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축하의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KPAI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직간접적인 교류를 통하면서, 특히 KPAI 장학생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한국인의 자긍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비적인 K 문화 때문이 아닌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유산을 지키고 가르치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세종학교 교육을 통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후손들에게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 관계자분들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자동차 산업, 그 외에 빠르게 변화하는 많은 것들과 달리,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KPAI를 대표해 힘차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3대 KPAI 회장
현종석 드림

소중한 만남



전 세종학교 교장 남영림

세종학교의 첫 만남은 1972년 4월 !

미국에 온 지 7년 만에 한국방문하고 오니 세종학교가 막 개교하였고 4월부터 특별반(한국에서 온 학생)을 맡아 달라는 부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들은 손수 교재를 만들어 자기 반에 맞게 일 년 계획을 세워 가르쳤습니다.

40명의 학생으로 4반(유치, 초등, 중등, 특별) 교무, 음악, 무용 등 7명의 교사들과 6명의 이사님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대로 학생, 교사, 학부모, 이사분들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과 인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교사 연수회 낙스 총회 등에 참석하면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관계로 특별한 보람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한인사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성장했음에 감사드립니다.

은퇴한지 20년인데 아직도 교장으로 불러 주심은 30년간의 세종학교 만남의 관계가 소중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현 교사들과 교장의 수고로 이제까지 이렇게 꾸준히 발전되어 온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미래를 향해 끊임없는 세종학교의 무궁한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세종학교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개교 50주년을 맞는 세종학교를 축하하며...



전 세종학교 교장 박경혜

볼모지와 같았던 교민사회에 2세들에게 모국어와 문화전통을 가르침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인식시켜서 그들의 미래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위한 세종학교가 뜻있는 분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 지역에 세워져서 명실공히 해외 2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여 개교 50주년을 맞게되었음이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동안 수고와 열정으로 2세를위해 수고해주신 수많은 선생님들, 거쳐간 학생들, 뒷바라지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셨던 부모님들의 정성이 모아져서 눈에 보이지않는 조국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50년이란 짧지않은 시간동안 조국은 눈부신 발전과 성장이 거듭되어 개발 도상국의 위치에서 세계 발전을 주도하고 헌신하는 1등 국가로 발전하여 왔음에 긍지를 갖게된 지금 단순한 민족정체성을 넘어 인류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일꾼을 키워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자랑스런 한국인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들의 2세들이 그 증거이며 3세 4세 후손들에게도 한국어와 그 문화를 계속하게 하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난 50년의 밑거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종의 학생과 선생님들은 시대변화에 맞추어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아 명실공히 2세를 위한 해외교육 기관중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로 발전해왔고 앞으로 다가오는 다변화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맺어온 결실을 추수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세종학교를 거쳐서 사회에 적응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어가는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킹을 만들어 역사전통을 더욱 빛내고 배우고있는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어주기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학부모로, 교사로, 교장직을 맡았던 시간이 그립습니다.

다만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했지만 아쉬움이 남아있고 이제는 어쩌다 성장한 졸업생들과 마주치는 경우도있고 건강한 그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한국어를 할 수 있다고 자랑스러워 하는 모습에서 작은 수고의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빠르게 진화하고있는 사회에 맞는 미래지향적 발전과 교육을 기대하면서 희생적인 헌신노력을 하고계신 선생님들의 노고와 끊임없이 헌신해 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세종학교의 개교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세종학교 학부모회장 최소연

세종학교의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저희 가족이 세종학교와 함께 한 6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한국학교를 고려할 만한 마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던 제가 세종학교의 개교 50주년 축하글을 쓰고 있다니, 새삼 감격스럽습니다.

당시에는 한국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에 온 서진이가 어떻게 영어를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지의 문제가, 바로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미국 생활에 금세 적응을 하고, 한국어 실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지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미 세종학교와 함께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여러 언어에 능통하다는 것은 분명, 개인의 능력으로 봤을 때 중요한 힘입니다. 하지만 서진이에게 한국어에 능통하다는 것은 개인의 역량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가 자연스럽게, 카카오톡으로 친척, 사촌들과 연락을 하고, 크리스마스에 연말 인사를 써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늘 가깝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자연스럽게다는 것은, 그 나라말을 잘 하고, 잘 듣고, 잘 쓰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그 언어를 쓰는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고, 음식을 알고, 명절을 알고, 유행하는 문화와 인물을 알아야 비로소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학교에 참 고맙습니다. 집에서 서진이와 대부분의 대화가 한국어로 이루어지고 매주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함께 보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화와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분명 세종학교를 다니면서 누리게 된 중요한 혜택입니다. 매해 열리는 세종 골든벨을 준비하며 집중적으로 역사와 인물 공부를 하고, 한글학교의 날을 통해 특별 주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태권도, 사물놀이, 김장체험, 세종 장터에서 신나게 직접 한국 문화를 경험하며 서진이는 어쩌면 한국에서보다 더 폭넓은 한국 문화를 접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역사, 문화 교육에 더해, 제가 세종학교에 가장 감사드리는 부분은, 서진이가, 그리고 제가, 세종학교를 통해 만나게 된 고마운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세종학교를 토요일에도 가야 하는 학교라고만 생각했던 서진이가, 이제는 세종학교를, 어느덧 6년 시간을 함께한 특별한 친구들을 만나는 즐거운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서진이의 달반 친구들, 부모님들, 그리고 세종학교의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과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주 서진이에게, “너는 너를 아는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국가대표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한국을 대표한다 -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적 자주 했던 생각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내 나라를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당당하기를 바라는 당부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알고, 우리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네트워크를 다지며, 항상 당당할 수 있도록, 훌륭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께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들이 세종학교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부모님들께도 열렬한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2년간,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시기에도 세종학교는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세종 가족들이 함께 쓰게 될 앞으로의 세종학교의 역사가 기대됩니다.

세종학교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토끼반

교사 박진희

홀로 화면을 바라보며 아이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익숙해질만한데 여전히 어색합니다. 발걸음 소리와 재잘거림 대신 화면 속 박스들이 늘어나는 걸 보고서야 온기가 돌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매주 토요일 아침의 토끼반 온라인 수업은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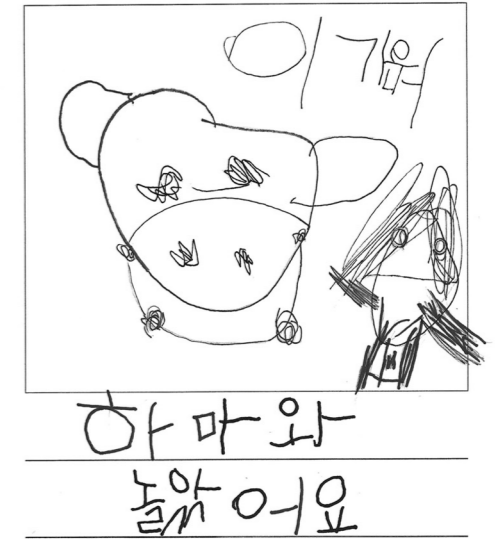
어려운 시기에 만난만큼 더 오래도록 기억하고픈 우리 토끼반 친구들.. 하마 친구와 함께 늘 사랑스럽게 웃고 있는 기원은 서툰 한국어지만 예쁜 목소리로 발음도 열심히 따라 하고 글씨도 척척 잘 만들 줄 알아요. 아무지고 쾌활한 하선은 이제 언니들만큼 글씨도 예쁘게 잘 쓰고 한국어로도 많은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표현할 줄 알아요. 경찰이 꿈인 풀망풀망한 민찬이는 늘 개성 있는 모습과 재미있는 그림들로 친구들과 저를 즐겁게 해주었어요. 토요일마다 디즈니 공주님이 되는 지희는 조곤조곤 말도 잘하고 무엇이든 혼자서 완성하고는 미소 가득한 얼굴로 저에게 자랑합니다. 점잖은 신사 은우는 모범생에 장난꾸러기여서 수업도 숙제도 열심히 만큼 예쁜 장난으로 저를 많이 웃게 해주었어요. 눈썹미남 선준이는 좋아하는게 확실한 열정맨이라서 집중할 때 눈썹 사이에 힘이 뿜어간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비록 자그마한 손을 함께 잡아주며 기억, 니은을 써 주지는 못했어도 더 많은 이야기와 표정으로 아이들과 만나면서 지난 1년 동안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한글을 완전히 익히기에는 많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 배움의 시간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즐거운 놀이처럼 간직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놀이가 한글에 대한 호기심과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키워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부모님들의 더 없는 응원과 격려도 큰 힘이 되었어요. 행복한 시간들을 나눠주셔서 우리 토끼반 친구들과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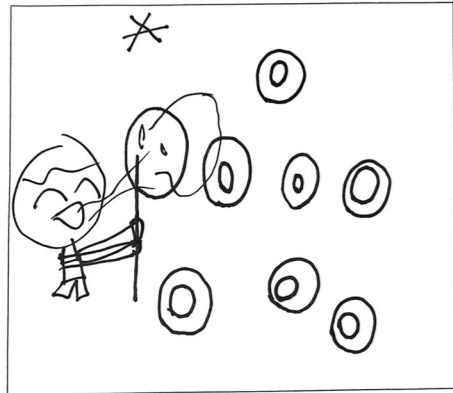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이기원



세종학교 토끼반 이름 정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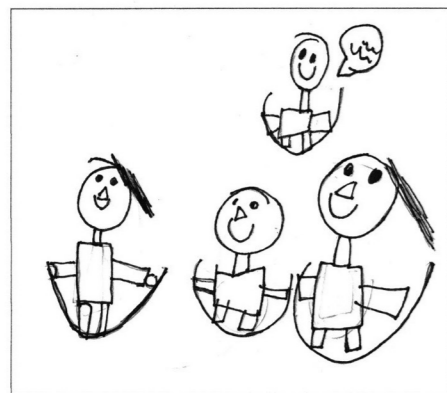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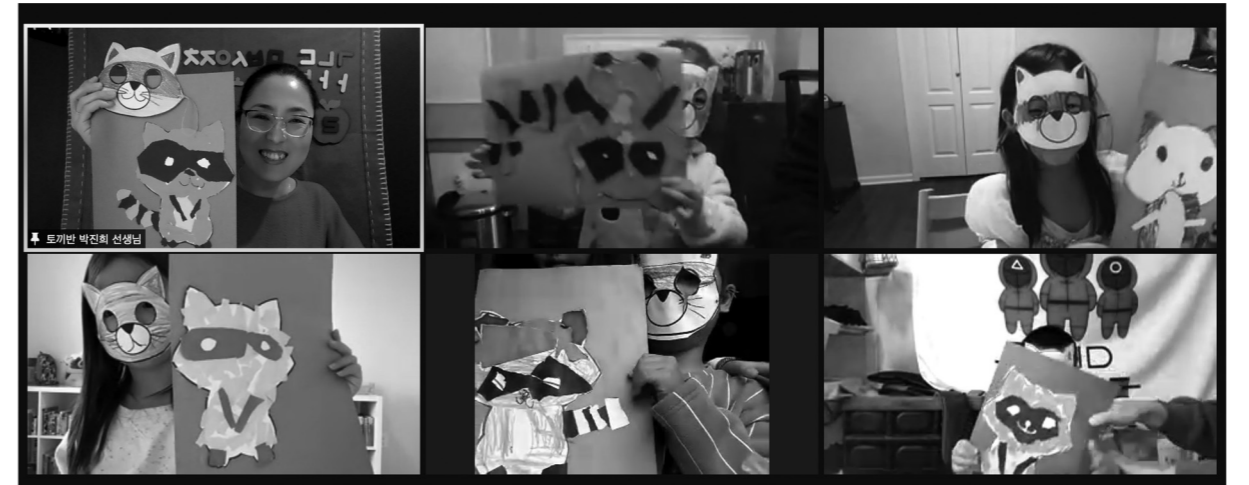
나는 비누방울 놀이가
좋아요♡



모임



삼촌들을 태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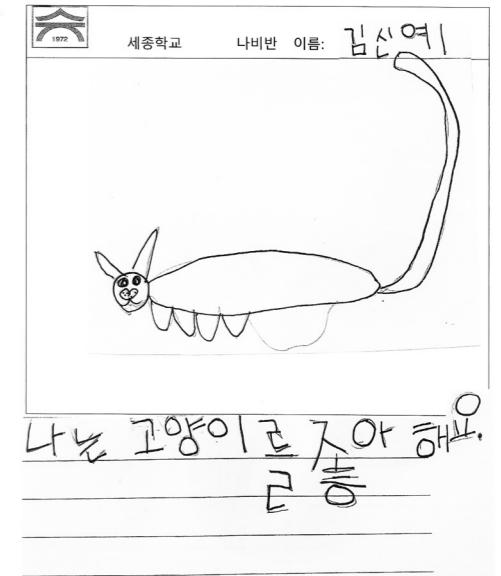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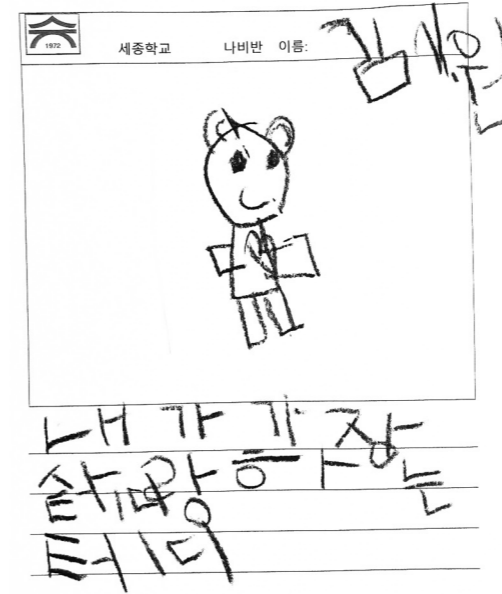
나비반

교사 김기원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은 1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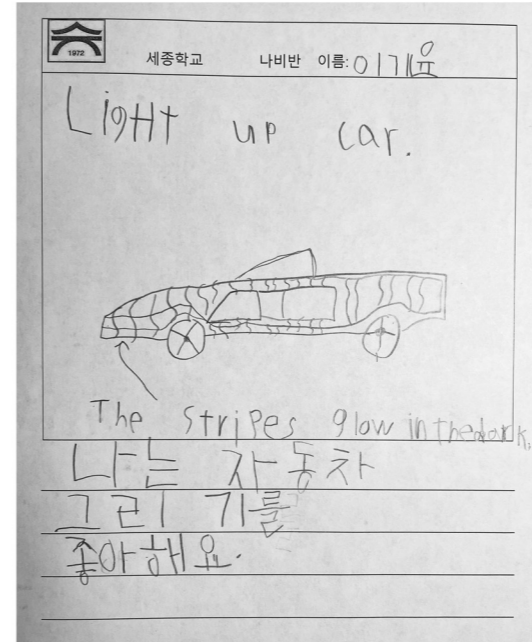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자그마한 컴퓨터 화면으로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비반 친구들은 그 누구보다 정확한 시간에 단정한 옷차림으로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아이들 곁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을 도와주셨던 학부모님들이 계셨기에 무사히 한 해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나비반 모두는 환경과 시기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한글을 배우고, 지켰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걱정되고, 서로 만나는 게 힘들어진 시기였지만, 서로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나비반 친구 한 명 한 명에게 큰 칭찬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양이를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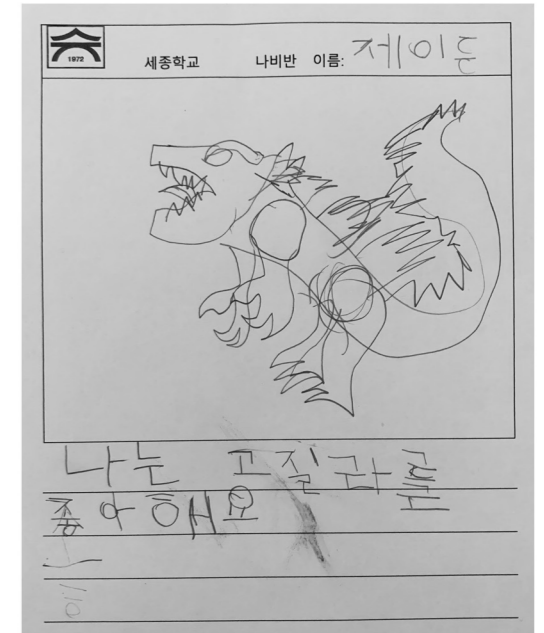
Light up car.

The stripes glow in the dark.

나는 자동차
그린 기를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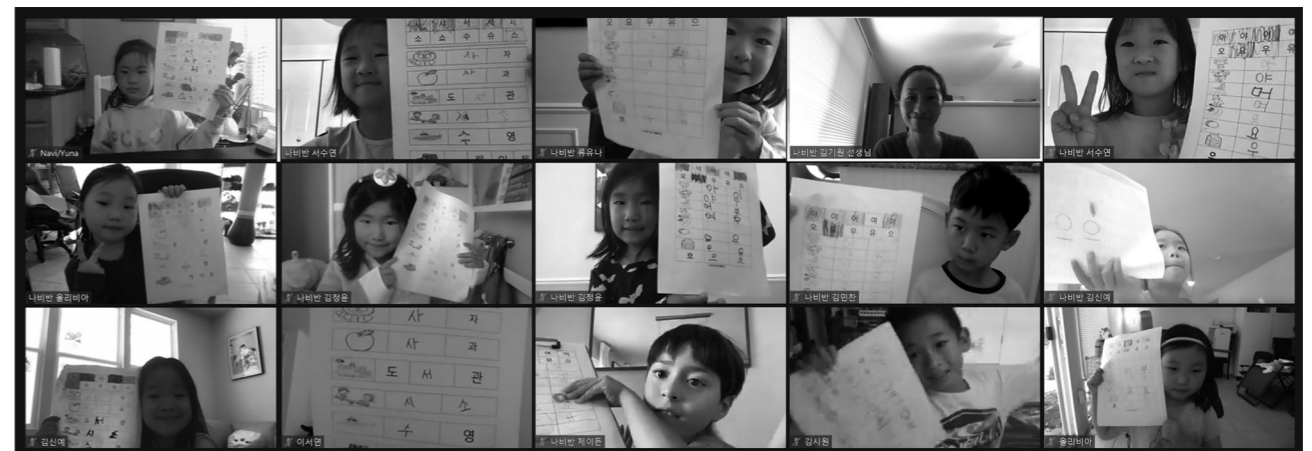
나는 어린이가
눈사람을 만들었다.



나는 공룡과
좋아해요.



나는 고양이
를 좋아해요.





개나리반

교사 박현우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2년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온라인 수업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다루는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교사와 학생들 간 또는 동급생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없어 아이들의 의사소통이나 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사였습니다.

개나리반 한글 수업 전에는 20분의 간식 및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작 10분 전부터 들어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곧 친구들이 입장하기 시작하면 간식시간이니 과자를 먹는 친구, 딸기를 먹는 친구, 바나나 우유를 마시는 친구, 장난감을 가져와 카메라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며 귀여운 표정을 짓는 친구...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더니 한 친구가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A: "넌 뭐 먹어?" B: (쿠키를 카메라 앞에 보여 주며) "쿠키 먹어!" A: "난 팝콘 먹어. 한 봉지 더 먹을 거야." 그러더니 다른친구가 또 얘기를 시작합니다.

C: (D친구의 장난감을 보며) "OO야, 그게 뭐야?" D: "엄마가 사준 보석함이야. (보석함 안을 보여주며) 보석함 안에 이런 게 있어!" C: "예쁘다. 다음에 나한테도 보여줘."

하루는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말을 겁니다.

A: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친구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자 어리둥절하던 개나리반 친구들 중 한 명이 A친구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말하는 순간 행동과 얼굴 표정을 멈춥니다. 다른 친구 한 명도 같이 하게 되었죠. 온라인 버전의 무궁화 게임이라고나 할까요?

수업 전이라 카메라를 끄고 아이들을 보고 있는 저는 혼자서 빵! 터져서 한참을 웃곤 합니다. 아이들의 대화를 끊기가 미안할 정도로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물론 모든 친구들이 온라인상에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조용히 듣는 친구들은 그 나름대로 카메라 앞에 바짝 앉아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며 웃기도 합니다.

물론 대면 수업만큼의 교류는 없을지 몰라도 어른들의 걱정만큼 온라인 수업이 부정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흥이 많은 성협이, 개나리반 맏언니 같은 의젓한 민솔이, 공룡 박사 태양이, 2학기에 들어와 엄청난 적응력을 보여준 시율이, 원숭이 옷을 입고 바나나 노래를 불러 금상을 받은 귀염둥이 준하, 여행을 가서도 수업을 듣는 성실한 혜서, 그리고 2학기에는 함께 하지 못한 하중이, 민채, 민서까지..

올해도 최선을 다해 달려온 우리 예쁜 개나리반 친구들과 옆에서 아이들 수업을 돌봐주시느라 토요일 오전 내내 수고하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예쁜 개나리반 친구들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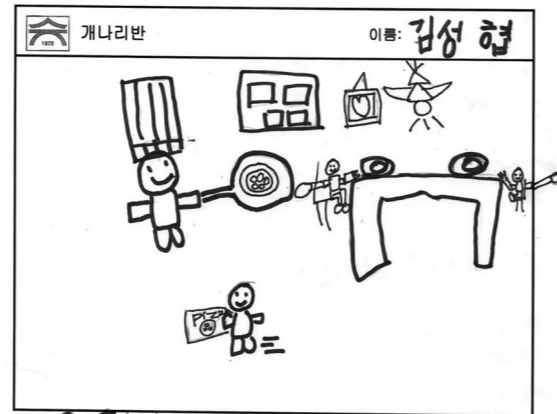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것을 많이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
 니다.



나는 커서 공룡 박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공룡을
 많이 알아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요리사가 되서
 맛있는 피자를 만들
 거예요.



나는 커서 공주 만화를
 그리는 만화작가가 될거예요.
 그리고 책도 만들거예요.



나는 커서 공룡을 연구
 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새로운 공룡
 화석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 흥미로워요.



나는 물에 사는 동물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행복 했으면 좋겠어요.



매화반

교사 이윤경

여러 해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문집 글을 쓸 때면 반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고 수업 시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첫 만남은 모두에게 어색하고 설렘니다.

어색한 첫 만남은 지나고 이제 너무 익숙하고 편한 아이들과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화면 너머로 보이는 행동을 알아차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서운함과 아쉬움이 컸지만 온라인 수업에 익숙한 아이들이 한 층 더 커버린 느낌이 듭니다.

한 주 수업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여행을 가서 호텔에서 또는 할머니 댁에서 수업을 했던 아이들과 부모님의 열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노력하는 마음들이 모여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언젠가는 모두에게 큰 행복으로 돌아가리라 믿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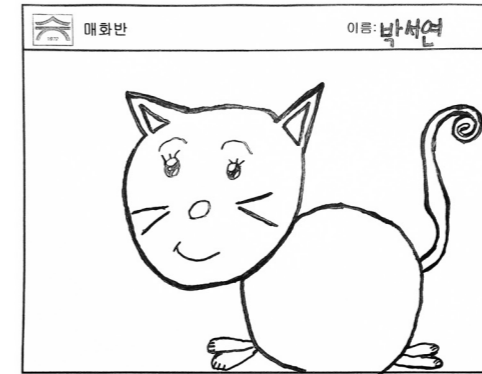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나 밝고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길 바라며 항상 마음 써주시는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열심히 학교 수업에 참여해 준 아이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열심히 수업하는 아이들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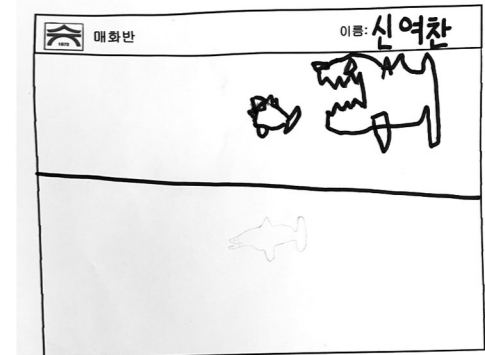
직접 함께 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런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세종학교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예요.
고양이는 기여우니까요. 그리고 고양이는 털이 따뜻하니까요. 고양이는 자는 모습이 예뻐요. 나는 고양이랑 가지 노는게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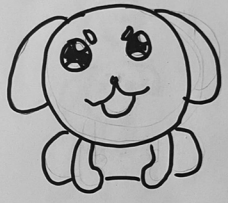


저는 상어가 좋아요. 여러가지 종류의 상어들이 있고, 작은 상어랑 큰 상어도 있어서 상어가 좋아요. 물속에 제일 세보이는 상어가 좋아요.



나비가 좋아요. 오가 나면 날개가 예뻐요.


매화반 이름: 유가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
예요. 왜냐하면 귀여워서 어요
같이 놀면 재미있어요.
저는 얇전한 강아지들을 좋아
해요.




매화반 이름: 최성우



고양이는 얇전하고 귀엽습니다.
고양이는 날카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고양이는 특히
더귀엽습니다.




매화반 이름: 이투



부분 뿜어 내는 용이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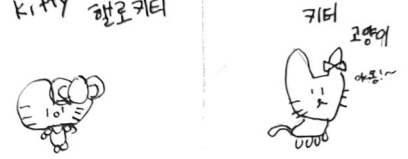
매화반 이름: 최문서



햄스터,
귀엽고, 잘 놀고,
부드럽고, 잘아서
좋아합니다.

매화반 이름: 조수민

Hello Kitty 햄스터 키터 고양이 애들!



고양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햄스터키터
좋아하거든요. 왜 햄스터키터를 좋아하냐면
귀여워서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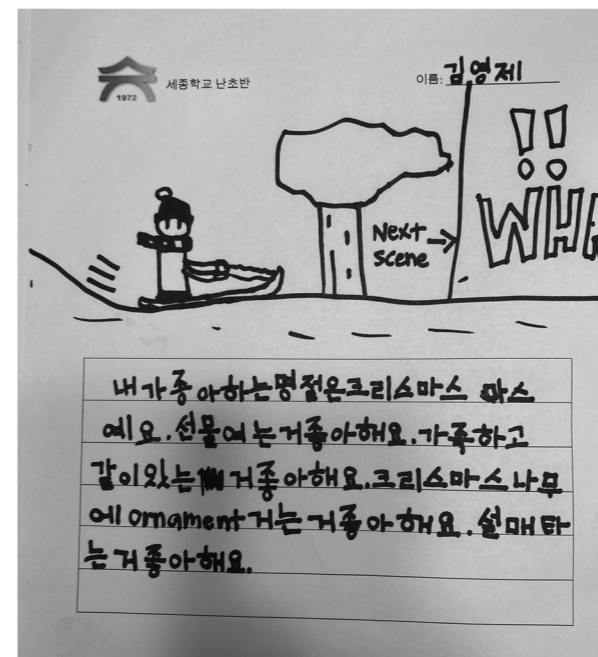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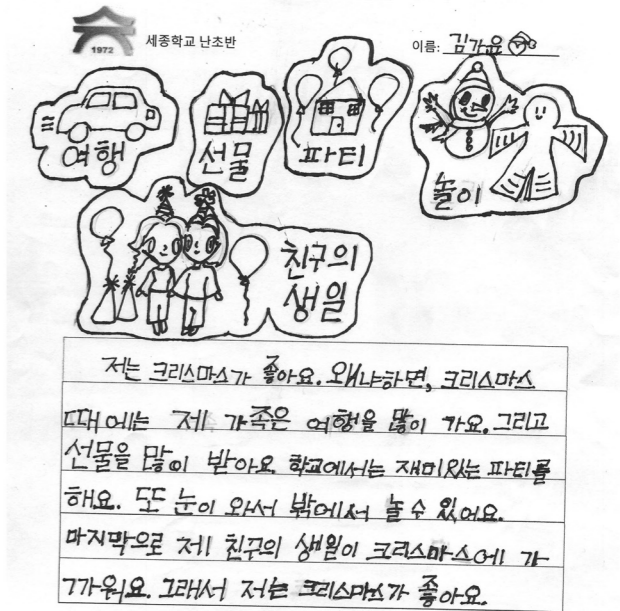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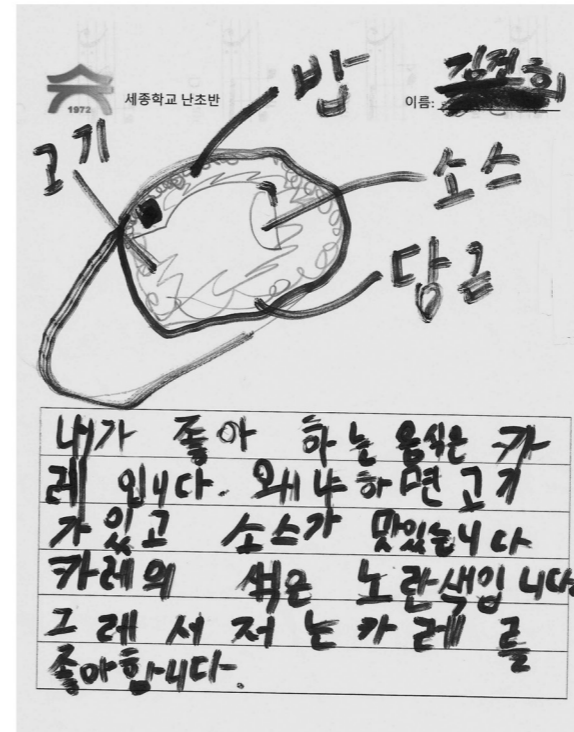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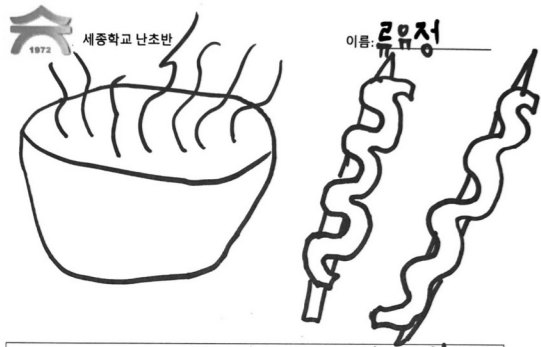
난초반

교사 김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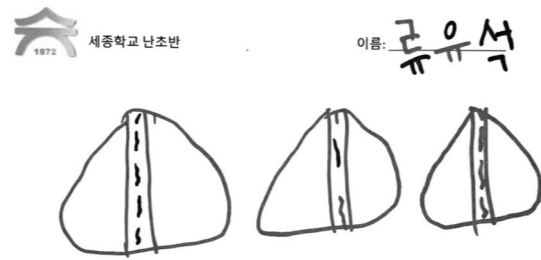
매년 문집글을 작성하는 시기가 돌아오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학기 초에 아이들과 교실에서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올해 또한 줌으로 매주 토요일 한글 수업 시간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난초반 친구들은 줌수업에 익숙하여 어려움 없이 수업을 잘 참여하였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집중하는 모습이 귀엽고 기특하여 저는 아이들과 만나는 토요일 수업 시간이 정말 즐겁고 보람찼습니다. 난초반 친구들과 매주매주 행복한 기억과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난초반 한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함께 해보았던 활동들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한글수업을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아이들을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학부모님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년동안 한글을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에 잘 참여한 우리 난초반 친구들-건희, 가운이, 영제, 유정이, 유석이, 래나, 지유, 은서, 은수, 헬렌이, 수진이, 연우, 레오, 민서- 선생님이 정말 많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대견해한다. 그동안 참 고마웠어. 앞으로도 꾸준히 한글을 공부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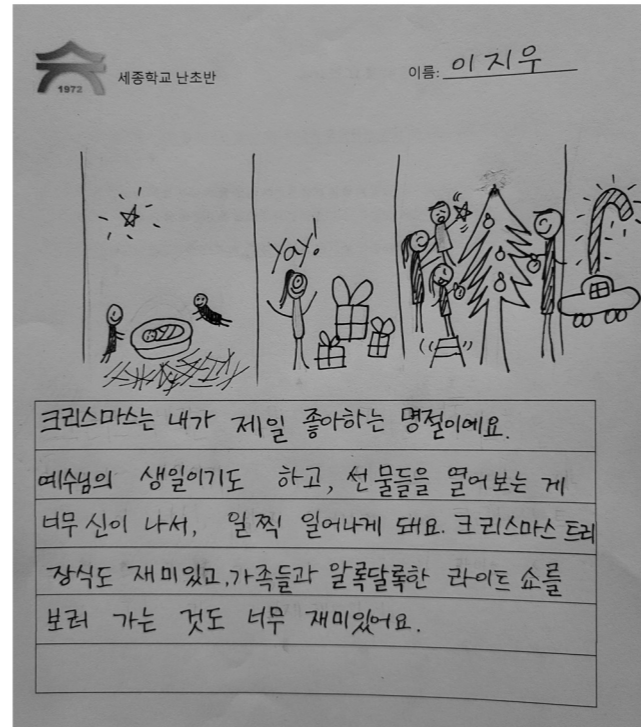
모듬은 너무 맛있어요. 쿵쿵 하고
주방에서 만드는 냄새가 너무 좋아요!
모듬은 먹으며 가장 애착이 있으면 제
일 맛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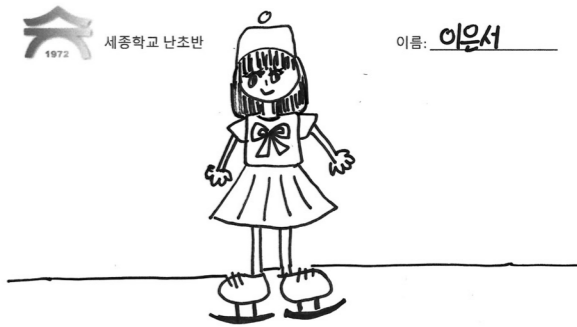
어머니가 만든 삼각김밥은
조아요. 저는 스키를 타
때 삼각김밥을 세 개 먹
었어요! 그리고 먹고 나면 함
이 싹 솟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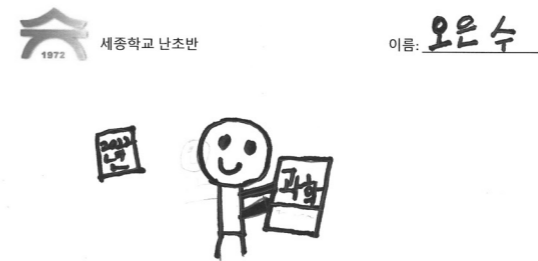
저는 2022년에는 수영, 피아노, 그리고 책 읽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수영을 잘하면 수영장에서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더 연습
해서 더 어려운 곡을 치고 싶어요. 책을 더 많이 읽으
면 똑똑해져요. 그래서 수영, 피아노, 그리고 책 읽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크리스마스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명절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이기도 하고, 선물들을 열어보는 게
너무 신이 나서, 밀집 일어나게 돼요. 크리스마스 트
장식도 재미있고, 가족들과 알록달록한 라이트 쇼를
보러 가는 것도 너무 재미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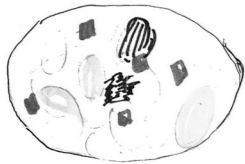
저는 아이스 스케이트를 배워 있어요.
처음에는 잘 타지 못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 디트로이트에 가서
스케이트를 탔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내년에는 더 연습해서 스피드도 하고 점프도 하고
싶어요. 나중에는 무대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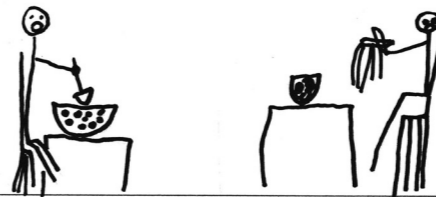
2022년 에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특히 책을 많이
읽고 싶어요. 저는 과학에
관한 책을 많이 읽을 거예요.
과학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은 지식
을 얻을 수 있어요.



떡국



설날은 음력 1월 1일 입니다.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부모님에게 세배를 하고 세배도 받습니다. 일년 내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전화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떡국은 맛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나는 새우 떡국을 좋아합니다. 우리 엄마가 떡국을 자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라면도 좋아합니다.



저는 김밥을 좋아해요 김밥에 치즈를 넣으면 제일 맛있어요. 김밥 만들기도 재미있어요. 길게 말아서 만들수도 있고 삼각 김밥도 할수 있어요. 언니랑 같이 삼각 김밥 만들고 놀았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라면이에요. 계란으로 치즈가 들어있는 것도 맛있어요. 라면을 다 먹고 밥을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엄마가 한달에 한 번만 먹어야 돼요. 하지만 나는 매일 매일 먹고 싶어요.



나는 김밥을 제일 좋아한다. 왜냐하면 김밥에는 오이와 들어 있어서 시원 하면서 맛있고 또 햄이랑 계란이 고소하다. 그리고 노란 단무지는 새콤달콤하다. @나는 김밥이 참 맛있다





무궁화반

교사 김희경

코로나로 처음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을 때는 ‘올해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2021-202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어 아이들을 직접 만날 수 없어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 아이들과 매주 만나며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도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BTS와 미역국을 제일 좋아한다는 이준이, 공부도 양궁도 열심히 하는 지훈이, 자수를 잘 놓는 라엘이, 책 읽기를 좋아하고 운동도 잘하는 혜나, 포켓몬을 사랑하는 하준이, 물고기를 키우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최예린이, 수줍어하면서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한예린이, 수영과 종이접기를 잘하는 유노, 그리고 2학기에 무궁화반에 함께한 푹푹한 소현이까지 9명의 친구들과 함께한 일 년이 너무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발표하는 아이들 뒤에는 어려운 시기에도 아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애써주신 학부모님이 계셨음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만일 내가 초고속 고슴도치 영웅 소닉이 된다면~

무궁화상 김이준

만일 내가 초고속 고슴도치 영웅 소닉이 된다면 소리와 빛보다 더 빠른 능력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축구 선수나 테니스 선수가 되고 싶어요.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뛰면 모든 운동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 게임을 할 때 번개처럼 빠른 발로 상대팀 수비수들을 다 따돌리고 엄청나게 강력한 공격을 할 것입니다. 골키퍼도 절대로 제가 찬 공을 막을 수 없겠지요? 또 테니스 시합을 할 때 상대 선수가 아무리 강하게 서브를 넣어도 저는 재빨리 공을 놓치지 않고 쉽게 공을 넘길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서브를 넣을 때 초고속으로 하면 상대 선수가 당황해서 제 공을 놓칠 것입니다. 이러한 초고속 능력을 이용해서 모든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초고속 능력을 이용해서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맛있는 떡볶이도 먹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도 만나서 크리스마스 파티도 할 것입니다. 즐거운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만약 멋진 대통령이 된다면~!

아름다운상 양지훈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전쟁 때문에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아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아이들도 보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면 나는 멋진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가장 먼저,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무기를 녹여서 장난감, 자전거, 자동차 또는 냉장고를 만들어서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고 싶어요.

다음은 아픈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움직이는 병원을 많이 짓고 로봇 의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치료를 빨리 받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멋진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영화 만드는 사람이 되면

고운상 이라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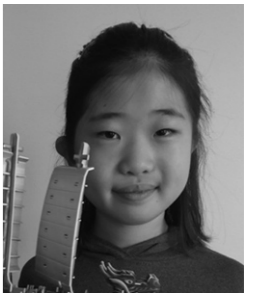
요정이 나를 찾아오면 저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할 거예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동영상을 찍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히어로가 나오는 영화와 팀워크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또 레고로 만드는 영화와 코미디, 판타지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영화를 위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빨간 머리의 사람이 매직돌을 훔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빨간 머리는 숲속에 있는 동굴에 가서 매직돌을 훔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열쇠가 없어서 훔치지 못했고, 하트 블룸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빨간 머리는 하트 블룸을 찾으러갔어요.

캠핑을 갔던 하트블룸은 빨간 머리를 만나서 싸웠어요. 빨간 머리는 절벽 가까이에서 싸우다가 하트블룸이 밀어서 산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이 영화를 위해 영화 배경도 만들고, 인형도 옷을 입혀서 영화를 조금 찍었어요. 다 만들면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한테 보여줄 거예요.



만약 내가 작가가 된다면

예쁜상 손하준

내가 만약 작가가 된다면 프로 디지 게임만화랑 모험을떠나는 포켓몬 이야기들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제 책들을 읽으면, 아주 재미있어서 더 읽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의 책에 싸 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의 영어학교에서 조쉬핑크라는 유명한 작가가 왔어요. 조쉬핑크가 우리의 책들을 싸인해줬어요. 저도 조쉬핑크처럼 아이들의 책들에 싸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쓴 책들을 도서관에 기증하고 싶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많이 읽어서 제가 유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만일 내가 고생물학자가 된다면~

김혜나

내가 만일 고생물학자가 된다면 나는 화석을 발견하고 싶어요.

화석은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화석을 발견하면 그 주위에 더 많은 화석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면 고생물학자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치과 의사가 된다면

서유노

만일 내가 치과 의사가 된다면 사람들의 이빨을 고치고 싶어요.

저는 쪼이는 걸 잘 하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치과의사는 모두 부자예요.

그리고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집에서 가족을 위해 음식도 해주고, 이빨도 치료할 거예요.



내가 만약 성우와 애니메이터가 된다면~

안소현

나는 커서 성우와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성우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이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새로운 캐릭터를 그리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애니메이터가 되어 내가 상상한 캐릭터들로 영화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싶어요.

성우가 되려면 자신 있게 표현을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여름에 드라마 캠프에서 자신 있게 발표하고 연기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열심히 해서 레고 리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의 꿈 성우와 애니메이터가 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재미있고 신나는 책을 더 많이 읽을 거예요.

이제 곧 여름방학이 되면 또 드라마 캠프에 가서 많이 배우고 싶고, 너무 기대돼요.



만일 내가 똑똑한 수의사가 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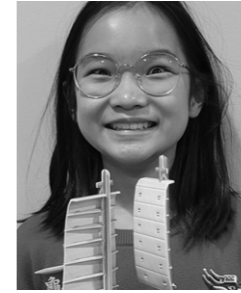
최예린

만일 내가 똑똑한 수의사가 된다면, 사람들이 키우는 동물들을 치료하고, 병에 안 걸리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수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해요. 왜냐하면 동물들을 살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똑똑해야 해요.

그리고 동물 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 기회가 된다면 강아지, 고양이, 새 등도 직접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동물들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수의사가 되면, 유기견 보호소에 번 돈을 기부해서 동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만일 내가 동물 구조원이 된다면

한예린

나는 동물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 구조원이 되고 싶어요.

만일 내가 동물 구조원이 된다면 아픈 동물들을 잘 보살펴 줄 거예요. 집을 잃은 동물들이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집을 찾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다면 새로운 집을 찾도록 도와줄 거예요.

내가 동물 구조원이 된다면 멸종 위기의 동물들도 지켜줄 거예요.

동물 구조원이 되는 일은 상상만 해도 정말 멋진 일입니다.





장미반

교사 윤희란

올 해 장미반은 지난 해보다 학생 수가 2배나 늘어나서 처음에는 화면 속의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성취도와 특성을 파악하고 각자에게 맞는 과제를 주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장미반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게임을 수업 내용에 맞추어 적절하게 활용하였습니다.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한국어에 자신감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과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이 향상되었길 바랍니다.

세종 글짓기 대회에서 “장미상”을 수상한 도겸이와 독립심이 강한 지수는 차분하고 진지한 자세로 모든 학습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였습니다. 수줍은 미소가 매력적인 지홍이와 주현이는 만들기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고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을 잘 하는 대영이는 수업 분위기를 활기차게 이끌었습니다. 밝고 쾌활한 민혁이와 준우는 항상 웃는 얼굴로 주어진 과제마다 최선을 다했고 한국어 실력이 뛰어난 윤호는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잘 했습니다. 글씨를 예쁘게 쓰는 나연이와 다연이는 수줍음이 많아서 먼저 나서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화면에서 만났던 장미반 학생들을 세종학교에서 대면으로 직접 만나길 기대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장미상 이도겸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바로 뱀이다. 왜냐하면 뱀은 진짜 멋있고 무늬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뱀의 머리가 삼각형 모양이면 독사고 사각형이면 독사가 아니다. 독사한테 물리면 사망할 확률이 80%다.



뱀의 독은 해독제를 만든다. 뱀의 독으로 폐병, 천식, 기침, 가래를 치료한다. 플로리다 주에는 파이톤 (뱀 종류) 피자 요리를 한다. 한국에서는 주로 뱀을 몸을 보호하는 탕이나 술을 만드는데 쓰인다. 뱀은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음식으로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열심히 훈련한 뱀은 목에 걸치고 만질 수도 있다. 나는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여행을 할 때 큰 노란 뱀이 내 목 위로 올려진 적이 있었다. 그 느낌은 정말 시원하고 부드러웠다. 그래서 뱀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독사의 이빨은 5cm 정도 길고 정말 뽀족하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위험한 뱀은 바로 블랙맘바이다. (10mph) 뱀에게 안 물리는 방법은 죽은 것 같은 뱀의 근처로 가지 말아야 한다. 도마뱀은 집에 있는 해로운 곤충과 벌레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도마뱀이 사는 집에는 벌레가 별로 없다. 뱀은 생각보다 무섭지 않고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많이 준다. 그래서 나는 뱀이 그냥 좋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

아름다운상 한민혁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비디오 게임입니다. 비디오 게임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는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스플레톤 게임에서는 오징어들이 많은 일을 합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는 판다와 같이 실제로 만날 수 없는 동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포켓몬에서는 이상한 몬스터를 잡아서 그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로블락스에서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비디오 게임에서 일어나는 비현실적인 일들은 다음 게임 스토리를 궁금하게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더 하고 싶게 만듭니다.



비디오 게임이 재미있는 또 다른 이유는 게임의 종류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게임을 끝내면 또 다른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있어서 친구와 가족과 함께 온라인 속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친구들을 만날 수 없더라도 온라인으로 만나서 함께 놀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들이 함께 게임을 할 수 없다면 새로운 사람들과 게임 속의 새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서로 협동하여 게임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나는 비디오 게임이 정말 좋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느낀 점

고운상 박나연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첫째,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가요. 둘째,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안 나가고 학교도 줌으로 했어요. 사람들이 회사도 안 가고 집에서 일했어요. 저는 학교도 안 가고 밖에도 안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좋은 점도 있어요. 학교 수업을 줌으로 해서 늦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잠옷을 입을 수 있어요.



코로나의 나쁜 점은 첫째로 여행을 많이 못 했어요. 둘째, 학교에서 마스크를 써야 해요.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쓰면 안경에 안개가 생겨서 너무 불편해요. 셋째, 학교에서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앉고 싶은 친구와 앉을 수 없어서 속상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죽기도 하고 힘들고 불편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코로나가 없던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예쁜상 오지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소설책을 읽는 것입니다. 소설책을 읽고 있으면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나는 소설책을 읽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소설책을 읽으면 현실의 내 생활에서 생길 수 없는 놀랍고 신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에 나는 모험 소



설책을 읽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Percy Jackson, Simon Thorn, Wings of Fire, Heroes of Olympus는 내가 가장 읽기 좋아하는 책들입니다. 읽은 책이지만 입을 때마다 너무나 재미있고 새롭습니다. 내가 이런 책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모험이 가득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학을 공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소설책들을 읽고 있으면 내가 싫어하는 수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내가 책을 읽는 동안에 얼마나 아빠가 수학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나는 다음에 나이가 들면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소설책을 많이 읽으면 내가 어른이 되어서 이야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소설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느낀 점

예쁜상 박나연

코로나이후로 달라진 것은 마스크를 써야 돼요. 마스크를 안 쓰고 학교에 가면 안돼요. 그래서 학교에 갈 때 매일 마스크를 챙겨야 해요.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면 안경에 습기가 생겨서 불편해요. 또 달라진 것은 코로나 백신을 두 번 아니면 세 번 맞아야 해요.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걸려도 심하게 많이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못 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퍼지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느낀 점은 코로나에 걸려서 아플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마스크를 쓰고 손도 깨끗이 씻어요. 저는 백신도 맞았어요. 저는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김대영

나는 육전이라는 전을 좋아한다. 육전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얇은 쇠고기, 계란, 밀가루, 키친타월, 프라이팬이다. 육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고기를 칼로 누른다. 그 다음은 계란과 밀가루를 두른다. 그 다음에는 기름을 프라이팬에 붓고 굽는다.



육전은 기름진 음식이어서 맛있는 음식이다. 내가 처음에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먹어 봤을 때 맛이 없어서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다시 먹어 보니까 맛있었다. 그 다음부터 먹은 육전들은 다 맛있었다. 육전은 계란과 밀가루와 같이 만든 것이어서 맛있다. 육전은 간장이랑 다른 소스랑 같이 먹어도 맛있다. 육전은 항상 부드러워야 한다. 나는 육전에 소금을 뿌려 먹는 게 좋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

민지홍

나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해요. 그 중에서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해요. 로블록스는 누구나 게임을 만들 수 있어서 게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IDLE 게임을 좋아해요. 건물을 세우고 아이템을 사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돈을 벌어요. 처음에는 진행이 빨리 되지만 비싼 것을 살 때는 더 많이 기다려야 해서 지루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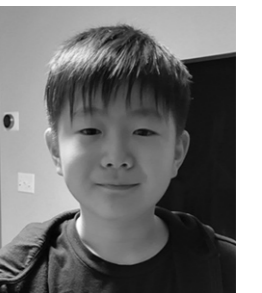
마인크래프트는 다른 사람이 만든 서버에서 게임하거

나 내가 만든 서버에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든 서버는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만든 서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나는 친구하고 게임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같이 어려운 것을 해내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나는 게임을 좋아하지만 혼자 하는 게임보다 친구와 함께 하는 게임이 제일 재미있고 좋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이준우

나는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Covid-19 때문에 친구들과 노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우리와 가족처럼 지내는 친구가 시카고에 사는데 한 두 달에 한 번씩 친구네 집에 갈 일이 생겨요. 친구네 집에 가면 나와 동갑인 친구와 한 살 많은 형, 내 동생 지우와 동갑인 여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친해서 다 같이 잘 놀아요. 우리는 교회도 같이 가고 집에서는 많이 못하는 비디오 게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친구네 지하실에서 농구랑 탁구도 하고 노래방도 있어서 노래도 해요. 또 그 집에는 쿠키라는 강아지도 있는데 우리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도 함께 해요.



여름에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하고 이번 겨울에는 스키도 두 번이나 타러 갔어요. 친구네 집에 가는 게 너무 재미있고 시간도 너무 빨리 가고 집에 돌아올 땐 너무 많이 섭섭해요. 엄마랑 아빠도 우리가 모두 지금처럼 사이 좋게 같이 잘 크면 좋겠대요. 앞으로도 친구들과 사이 좋게 잘 지내면 좋겠고 친구네 집에 갈 일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이주현

새해에는 하고 싶은일이 많아요. 첫째,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요. 그림을 잘 그려서 친구들에게 내가 그린 그림을 선물로 주고 싶어요. 친구들이 그림 선물을 하면 많이 좋아할것 같아요. 둘째, 새해에는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예요. 밤에 늦게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는게 힘이 들어요. 엄마가 깨워도 잘 못 일어나서 엄마한테 혼날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나는 노바이 스티전 수영 클럽에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수영할때는 힘이 많이 들지만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보다 미시간 호수나 바닷가에서 수영하는게 더 재미있고 좋아요.

새해에는 엄마, 아빠, 형들과 함께 수영하러 호수에도 자주 가고 멀리 여행도 가고 싶어요. 우리 가족은 캠핑을 좋아해서 매년 여름에캠핑을 꼭 갔어요. 캠프 파이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캠핑은 너무 즐겁고 신나요. 이번 여름에는 캠핑을 많이 가고 싶어요.



정윤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종이접기예요. 종이를 접을 수 있는 게 많아서 재미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종이요와 종이꽃이에요. 지금까지 만든 것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종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저는 우리 엄마 생일에 꽃하고 반지를 종이를 만들어 드렸어요. 매일 밤 제 동생이랑 유튜브를 보고 신기한 동물을 많이 접었어요. 지금은 색종이로 접지만 나중에는 더 큰 종이를 접고 싶어요. 제 동생은 작은 종이로도 잘 접을 수 있어요. 우리 색종이는 15cm X 15cm 인데 어떤 동영상들은 종이를 잘라야 해요.

우리 집에는 종이가 아주 많아요. 한국에서 이모가 한지 색종이들을 많이 보내 주셨어요. 한지 종이는 이상하고 얇아요. 접을 게 없을 때는 저는 그냥 무작위로 아무거나 접어요. 우리 집에 있는 색종이들은 다 색깔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이를 접을 때 무슨 색깔인지 몰라요. 색종이 동영상들은 너무 빨리 접어서 제가 많이 접어야 해요.



해반

교사 윤경혜

이 시대의 산업혁명과 각 집단의 이기주의가 이끌어 가는 사회가 얼마나 자연과 인간성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떠올리면 참 절망스럽다. 이런 어렵고 중요한 때에 올바른 가치로 무장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나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절실했었다. 그러던 중, 지난 한 해 동안 해반 학생들과 다룬 한국 문화 시간과 학생들의 성실함에서 큰 희망을 보았다.

올해 해반의 학생들은 한국의 위인과 전통문화를 배웠다.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의 애민정신 그리고 시대의 정신을 뛰어 넘거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가치를 실현한 위인들에 대해 학습했다. 그들의 피가 흐르는 후손으로서 왠지 모르게 스며드는 자긍심을 느꼈으리라. 후진국의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생물학 연구에 일생을 바친 과학자들을 배울 때 또한 학생들은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을까? 훌륭한 인물은 너무나 많다.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기 보다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백범 김구 선생님도 계시다. 세계의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유산과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전통음식, 건축과 한류열풍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이러한 한국의 위인과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존감이 향상됨은 자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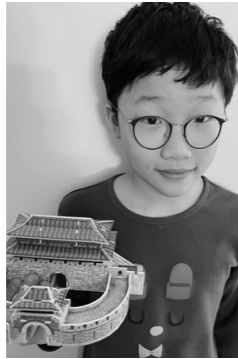
진정한 지도자라면 모두가 함께 잘 살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한국 문화와 위인을 알아가는 것은 그러한 성숙한 지도자의 바탕을 만들어 주며 그런 면에서 재미한국학교는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바란다. 부지런함으로 실력을 쌓고 홍익인간 정신으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실력과 덕을 겸비한 사람”으로 성장해 주기를...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해상 최성민

저는 이순신 장군처럼 멋진 장군이 되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마음이 강하시고 똑똑하실 뿐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작전을 잘 짜셨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님의 리더십과 자신감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리더십이 많으면 친구들과 놀 때 리더가 돼서 친구들이 모두 사이좋게 놀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감이 많으면 발표하는 자리에 많이 나갈 수 있고 말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전쟁놀이를 많이 했고 언제나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28살에 시험을 볼 때 활쏘기, 창던지기, 칼쓰기에서 모두 1등을 하였지만 마지막 말타기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4년 뒤 시험에 합격하고 백성들을 훈련시켜 사기를 충전시키고 좋은 대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거북선이 만들어지고 원군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적이 쳐들어 왔지만 이순신 장군이 나서서 싸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133척의 배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이 계속 적이 몰려왔고, 이순신 장군은 계속 싸우다 갑자기 날아온 총알에 맞고 쓰러지셨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총에 맞았다는 걸 알리지 마라.”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죽음보다 아군의 사기를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님을 닮기 위해 용기 있게 일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룹 활동을 할 때 조용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않게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나 그룹의 훌륭한 리더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여 용기, 실력, 지혜와 감사를 갖추어 그룹을 잘 이끄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상 박재연

저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의 최고 선수인 Steve Yzerman 같은 하키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키를 배우면서 하키 선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키에 관심이 생기면서 NHL 경기도 많이 보았고, 선수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팀인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의 스티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키를 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하키를 했다는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3살부터 형과 함께 하키를 시작했습니다. 하키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 10살 때 온타리오로 갔고, 16살에 온타리오 하키 리그에 들어가 114경기중 155점을 얻었습니다. 그 후 18살의 나이에 NHL 레드윙스팀에 들어가 21살에 캡틴이 되었고, 22년 동안 하키 선수를 하면서 3번의 스탠리컵 우승을 했습니다. 은퇴 후 레드윙스팀의 코치가 되었고, 2017년에는 100명의 잘 하는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티브처럼 제가 좋아하는 하키를 오랫동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여름방학 동안 매일 슛 연습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이번 시즌이 시작되면서 슛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원래 포지션이었던 수비수에서 센터로 바꿔 팀이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습한 만큼 실력이 늘기 때문에 더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로, 다치

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스티브가 1988년에 무릎 수술을 해서 일 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키는 굉장히 격렬한 운동입니다. 경기 중 다치게 되면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저는 팀에서 잘하는 선수이지만, 다른 팀원들에 비해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체력을 더욱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꾸준한 연습으로 실력을 기르고 체력 관리를 철저히 하여, 팀을 이끌 수 있는 멋진 하키 선수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운상 김이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과 자연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새소리와 다양한 새들의 종류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학교에서 Allen Chartier라는 조류학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자는 미시간 최초로 벌새들에게 표식을 묶어서 오랫동안 이동경로를 연구해서 기록하고 다양한 새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Bloomfield Nature Center에서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1957년 출생으로 열한 살부터 새를 연구했고 “디트로이트의 새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일생과 그 업적 중 저에게 가장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은 훌륭한 점은 어떤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5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새들에게 관심을 갖고 조류환경 보호에 힘썼습니다. 열정뿐만 아니라 엄청난 노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을 닮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해야 할 노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새 관련 책들이 다섯 권 정도 있는데 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전문 서적들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직접 새들을 관찰하고 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저만의 정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만의 새 관찰 기록문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적어 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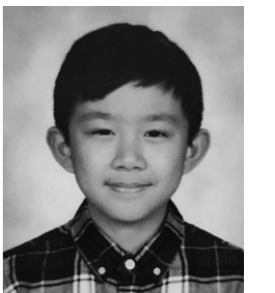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끈기를 가지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민준

저는 커서 차분하고 책임감 있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그렇게 한 평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이 보호시설을 만들어 어린



이들이 살 수 있게 했고 ‘사랑의 선물’이라는 장기 요양소도 만들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과 자신을 베풀면서 삶의 대부분을 바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세상의 병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87세에 돌아가셨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으며 큰 사랑으로 작은 일만 할 수 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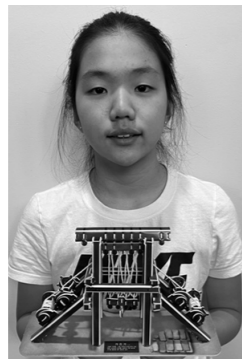
다.” 제가 해야 하고 닦고 싶은 일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만 채우지 않고 남도 생각하며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바로 가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제가 그녀처럼 친절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의 한 예입니다.

나의 꿈 - 인테리어 디자이너

김성원

제 꿈은 계속 바뀝니다. 1학년 때에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유튜브도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이 예쁜 집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쁜 화분도 있고 액자도 있고 멋진 가구도 있습니다. 제 방에는 책상, 침대, 책장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제 방에 있는 가구를 여기저기 옮겨놓습니다. 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제 방에는 제가 만든 나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준 선인장 화분도 있습니다. 가짜 화분이지만 귀엽습니다. 아이패드로 인테리어 디자인 게임도 하고 그림 연습도 합니다. 게임에서 만든 내 집을 보면 진짜 집을 똑같이 꾸며 보고 싶습니다.

저는 멋진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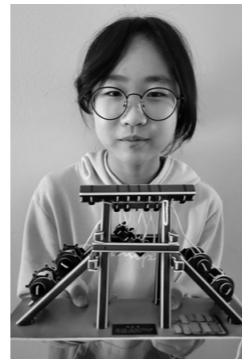
나의 꿈 - 마취과 의사

안현진

저는 어렸을 때, 소아과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 무섭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이 주사를 무서워하고 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내가 커서 무엇이 되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취과 의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니,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다가 지겨워질 때면 의사가 되어있는 ‘나’를 상상해 보곤 합니다.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의사로서의 나는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습니다. 여행이 주는 설렘과 새로운 곳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여행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한국과 뉴욕을 좋아합니다. 한국에는 가족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떡과 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뉴욕은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싶고 유명한 곳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어 돈을 많이 저축해서 여행을 자주 다니고 싶습니다. 저의 또 다른 꿈은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과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가 되어서 안정적인 생활이 되면 내 경험을 토대로 글을 계속 쓰고 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의사가 되려면 12년 동안 공부를 해야 하고 인턴실습을 거쳐 마취과 의사가 되려면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노력으로 내일을 만들고, 또 미래의 꿈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잘 걸어 나아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솔반

교사 오승용



온라인으로 수업한 2021-2022 잊지 못할 것입니다. 솔반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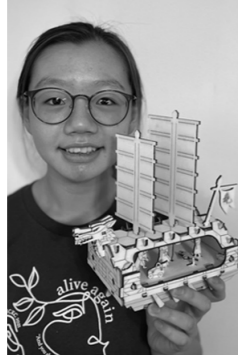


코로나 이후

솔상 오지효

지금도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고, 마스크도 사용하지
만, 많은 사람들은 아프고, 마음도 슬퍼해요. 이 바이
러스는 우리 삶을 힘들게 했지만, 코로나 19로 몇 가
지를 배웠어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친구
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
중한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어
요. 미시건에 이사 오고 친구들
이 없어서 외로웠지만, 혼자 있
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6학년 때 온라인 수업을 하면



서 너무 행복했어요. 점심을 동생들과 먹고 말도 많이
안 해도 돼서요.

하지만 그렇게 일 년을 보내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싶
은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랑 말하고 친구들이랑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
요한 것인가를 배웠어요.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도 배웠어요. 수업이 끝나고 시
간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심심해서 전화기를 많
이 사용하고 동생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들의 순서를 정하고, 쉬는 시간에 공부했어
요. 시간 낭비 안 하는 것을 배웠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
도 배우게 되었어요. 여행하는 것, 수영장에 가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랑 식당에서 먹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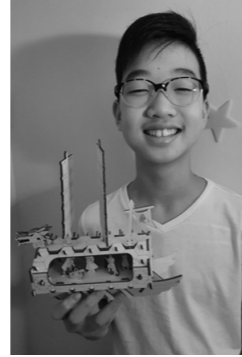
이 바이러스는 우리 세상을 변화게 했지만 좋은 것도
배웠어요.

코로나 이후

아름다운상 민진홍

나는 코로나를 생각하면 얻은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
웠던 것들이 먼저 생각난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체력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다시 가게 되었을 때 크
로스 컨트리 클럽에 들어가 운
동을 시작하고 지금은 예전보
다 체력이 더 좋아졌다.

코로나로 인해 한 가지 더 안
좋았던 점은 태블릿과TV를 많
이 쓰게 되었다. 나는 아직도
TV나 웹툰, 게임 등을 하는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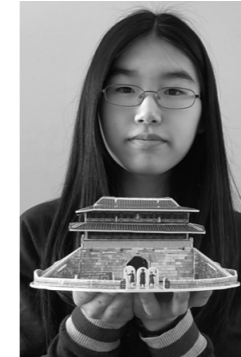
좋아하지만, 이것만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친구들과 밖
에서 노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많은 걸 배우고 경험
해야 하는 시기를 조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코로나로 인해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을 거
예요. 답답한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고, 여행도 자유롭
게 다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
기를 보내면서 그동안 공기처럼 너무 당연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
었어요. 또 건강한 가족과 친구들과의 시간도 당연한
게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
어요.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힘들고 답답한 마스크 쓰기, 백신 맞기 등, 우
리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운 중요한 점
입니다.

코로나 이후

고운상 박연서

코로나19로 제가 얻은 것은 일
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시간
이 더 많아지고, 더 건강해졌어
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온라
인 학교여서 괜찮았어요. 학교
에 실제로 갔으면 서두르는데
코로나19 덕분에 덜 급했어요.
잠을 더 많이 자기도 했어요. 코
로나19로 학교는 온라인 수업이어서 학교에 가는 시간
과 학교에서 오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숙제와 놀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코로나 19 때문에 집
에 많이 있어야 됐어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많이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는 게 좋았어요. 지루해서 재미
있는 놀이들을 찾아 해 봤어요. 재미있는 게임도 동생
들과 같이 놀고 엄마와 같이 요리를 하기도 했어요. 새
로운 것들을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더 건
강해지기도 했어요. 아프지 않으려고 손을 더 자주 잘
씻었어요. 집에서 할 것이 없을 때는 가족들과 함께 밖
에서 동네에 산책을 했어요. 코로나19로 집에 많이 있
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코로나19로 내가 얻은 것

김하원

사람들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다는 얘
기를 많이 합니다. 마스크 쓰기가 힘들다, 백신을 맞
고 나면 몸이 너무 아프다, 온라인 수업을 하기가 힘들
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코
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얻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는 우리가 원래 살고 있던 평범한 날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밖에 나갈 수 있었고 마스크도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거리
두기도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퀴린틴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가까이 앉아서 게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
금은 다릅니다. 나가기 전에 마
스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가 기침을 하면 코로
나에 걸린 게 아닐까 걱정부터 해야합니다. 친구랑 온
라인 게임으로만 놀고 페이스 타임으로만 얘기를 합
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때
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서유빈

비록 코로나 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 잃었지만, 우리가 많은 것
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얻은
것 중 하나는 자기 관리 시간이
있었습니다. 혼자만에 시간을 갖
게 되니까, 운동하고 제가 집에
서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



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피부 관리할 시간도 생겼어
요. 나는 또한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
게 되었어요. 보드게임도 함께 많이 놀았어요. 코로나
가 많이 심각해지기 전에 오랜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
어요. 실제로 못 만나는 친구들은 통화로 말했고요. 컴
퓨터도 많이 쓰다 보니 컴퓨터 실력도 늘었어요. 결론
적으로 코로나19로 내가 얻은 것은 많습니니다.

눈이 내리고, 따스한 햇살에 다시 그 눈이 녹아서 푸른 잔디가 보였다가 또 말끔히 하얗게 덮여지는 풍경을 보고 있으니 미시간의 겨울은 여전하구나 싶은 요즘입니다. 달력을 보니 이제 2월에서 3월로 달력을 한 장 넘겨야 하는 날이네요. COVID-19 때문에 갑자기 학교를 문 닫고 아이들과 온라인으로만 만나온지 어느덧 2년이 넘었다는 사실에 착잡한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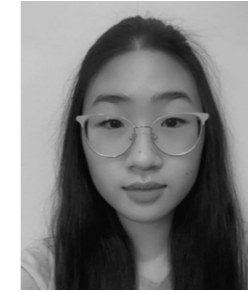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격리된 것처럼 집에서만 보낸 시간들이 떠오르고 아이들과 직접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어떤 대화도 나뉘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어디로 갔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가도 그동안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과제들, 직접 쓴 글들을 보니 그래도 헛되이 지나가버린 시간들은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듭니다.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답답하고 지루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도 1년 동안 집중해서 수업을 잘 따라와 준 우리 달반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또 신경 많이 써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원하는 아이들의 소망대로 오프라인 수업을 바로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서진이, 준형이, 준현이, 초연이, 수은이, 수산나! 모두 1년 동안 고생했다~!! 우리 이제 세종학교에서 직접 얼굴 보고 웃으면서 인사하자! 너무 예쁜 천사들이 모인 달반~~ 선생님 반 학생들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고, 많이 사랑한다!!.



내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달상 윤수은



온 지구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처럼 한국 문화도 퍼지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오랫동안 있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집에 많이 있다 보니,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한국 드라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가 있어 좋아요. 드라마 장르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것과 재미가 달라져요. 저는 사극과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해요.

사극 중에서 '신입사관 구해령'을 좋아해요.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드라마에서 예쁜 한복을 볼 수 있고 옛날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배울 수 있어요. 옛날에 남자와 여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로맨틱 코미디 중에서 저는 '사랑의 불시착'을 좋아해요.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한국의 남쪽과 북쪽의 차이점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삶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 수 있어요. 코미디라서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대화도 많아지고 좋아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한국 드라마가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시아 나라들이 유명한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굿 닥터'라는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서 리메이크 됐어요. 이처럼 한국 드라마가 여러 나라에서 사랑을 받고 있어요.

특히 '오징어 게임'은 일주일 만에 넷플릭스 드라마 순위에서 일등을 했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국말에 관심을 보이고 한국에 대해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친구들이 한국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고,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나의 꿈, 혹은 나의 상상

아름다운상 수산나



올해 저는 32살입니다. 제 나이에 꿈을 꾸기에는 무리이지만 제가 상상 중인 일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언어 배우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했고 오직 단어와 의미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말이었고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친구를 질투했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은 저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싶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원어민처럼 세상의 언어들을 말하고 싶습니다"였습니다.

지금 저는 토끼처럼 언어를 빠르게 배우지 않고, 거북이처럼 한국어만 천천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어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나라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상상은 작은 한국도시에서 살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 보다 작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친절한 것 같습니다. 작은 도시에는 서울보다 외국인들이 적어서 한국어를 연습하기 쉽습니다. 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과 이야기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커피를 줄 수 있습니다.

제 컨설팅 회사와 비교하면 편의점 운영할 때의 일상 생활은 지금과 정말 다를 것 같습니다. 손님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오랜 시간 일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다니는 회사의 문제보다 편의점의 문제들이 작기를 바랍니다. 작은 한국 도시에서 제가 한국 친구를 사귀고 한국어도 많이 배우고 한국의 일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실은 한국에 가기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꿈이 아니고 그저 상상입니다. 이 '꿈'을 꿀 수 없지만 언젠가 미래에 3개월 동안 한국에 여행을 갈

수 있고 재미있는 장소를 방문할 수 있고 한국어를 많이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사를 배우기 위해 광주광역시하고 경주시에 가고 싶습니다. 1980년에 광주의 정치적 역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에 유네스코 장소는 많습니다. 미국에서 사니까 6.25 전쟁만 공부했습니다. 한국 역사는 길고 풍부해서 세상의 시민으로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한국 외에도 나라들의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설날

고운상 하준형

저는 한국 문화 중 설날을 가장 좋아하고 신기해합니다. 왜냐하면 설날에는 할머니가 해주신 밥도 먹고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한 사촌들도 만나기 때문입니다. 맛있게 먹고, 재미있게 카드게임도 하고 밤새 놀 수 있게 어른들이 허락해 주시는 등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저는 설날을 좋아합니다.



설날 아침에는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면 용돈을 주십니다. 세배가 끝나면 저희 가족은 떡국을 먹었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엔 온 가족이 옷놀이도 하고 고스톱도 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헤어질 땐 슬프기도 했지만 또 만날 수 있었기에 항상 잘 헤어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미국에 있어 만나지 못해 무척 슬프긴 하지만 설날아침에 전화를 하여 세배를 하고 저와 한국에서 같이 미국으로 온 가족들과 모여 떡국도 먹고 같이 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설날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특별한 겨울방학 계획

예쁜상 김초연

나는 이번 겨울 방학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나는 한국에 다시 가고 싶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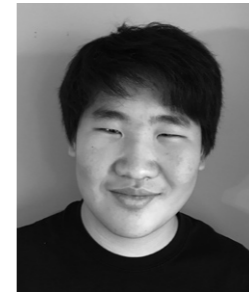
한국에 가면 한국 겨울을 오랜만에 볼 수 있고 미국에서 하지 못하는 특별한 활동도 할 수 있어요.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척들은 한국에 살아서 방학에 한국에 간다면 가족을 다 볼 수 있어요. 또 한국의 지리적 환경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산과 바다를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서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미국 보다 더 좋은 호텔과 수영장도 있어서 한국에 가고 싶어요. 나는 한국에서 내가 좋아하는 돈까스, 순대, 스크류바 아이스크림을 미국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다 함께 사우나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서 많이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아요. 집에서 방학을 보내면 밖에서 눈사람도 만들 수 있고, 한국에 없는 영화도 볼 수 있어요. 미국 책도 볼 수 있고, Youtube 비디오도 볼 수 있어요.

나의 특별한 겨울방학 계획

이준현

이번 겨울 방학에 토론토, 캐나다에 꼭 가고 싶어요. 토론토에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사세요. 토론토에 있는 이탈리아 델리가 있는 게 거기서 파는 살라미가 정말 맛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해요. 토론토에 가면 꼭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겨울 방학에는 처음으로 얼음낚시를 해보고 싶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는 꼭 해보고 싶어요. 얼음낚시는 아주 색다르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눈이 올 때 밖에서 캠프파이어를 해보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장작불을 피우며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고 신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썰매를 타는 거예요. 눈이 와서 썰매를 타면 정말 신나요. 겨울 방학 때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

최서진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김치다. 김치는 종류가 아주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김치는 배추김치다. 배추김치는 바삭바삭한 절인 배추로 만든 건데, 매울 수도 있지만, 안 매울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김치를 만들까? 김장을 하면 김치를 만들 수 있다. 김장은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뜻하고, 오래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김치를 나눠주기도 했다. 지난주 우리 가족이 김장을 했다. 김장하기 전에, 절인 배추랑 양념 재료를 샀다. 양념에는 배, 멸치 액젓,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이 섞여있다. 양념을 다 만들면, 절인 배추에다가 골고루 양념을 바른단.

김치는 바로 먹거나 아니면 익은 다음에 먹을 수 있다. 김치는 발효된 후에 먹을 수 있어서 최대한 쇼핑을 최소화해야 하는 코로나 시대에 김치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서 친구들과 같이 김장하고 김치를 나눠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김치를 담가서 배달을 해줄 수는 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백김치이다. 사람들은 이 백김치가 안 매워서 맛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짭조름하여 맛이 있다.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번 학년도 별반 친구들은 성실함과 함께 개성, 유머가 있어서 어느 해 보다도 즐거운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 별반에 올라온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세종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들이라 본인들끼리도 친밀감이 강해 보였어요. 화면상으로도 친구들과 얼른 만나서 소통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여서 귀여웠습니다. 세종학교가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문화와 언어를 가진 친구들이 한국어와 역사 문화를 배우며 동질감을 느끼고 배우고 소통하고 장난치면서 우리만의 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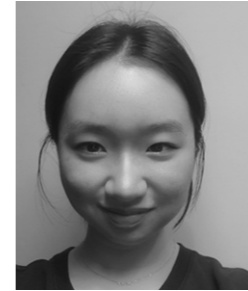
다양한 성격을 가진 별반 친구들은 매 수업 시간마다 성실히 수업에 잘 참여하였습니다. 지원이는 능숙한 한국어 실력으로 수업 시간에 후배들을 도왔고, 한국 역사 문화에 대한 지원이가 가진 다양한 지식과 열정은 교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멋진 목소리를 가진 대혜는 묵묵히 수업을 하다가도 가끔 날카로운 생각도 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내년에도 대혜가 꾸준히 참여하고 노력하면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편하고 재미있게 수업 시간에 꾸준히 참여하는 단이는 솔직한 생각과 더불어 남다른 깊이가 있어서 선생님을 놀라게 할 때도 많았답니다. 우수한 한국어 실력을 가진 찬영이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숙제도 해 오면서도 재미와 유머를 겸비한 학생으로 선생님을 미소 짓게 하였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예원이는 항상 집중력 있게 수업에 임하고 작은 지시사항도 놓치지 않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어요. 점점 더 예원이가 가진 잠재력과 매력이 드러날 것이라 의심치 않아요. 한국어 표현력이 좋은 지환이는 수업을 활기 있게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다방면에 관심도 많고 재능도 많은 실력 있는 학생 지환이가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꿈을 키워나가길 바래요. 성실함과 승부욕이 있는 준혁이는 선생님에게도 든든함과 믿음을 주는 학생입니다. 준혁이는 진지함과 동시에 여유도 가지고 있어서 큰 발전이 기대된답니다. 별반 모든 학생들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국 문화/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많이 다루었어요. 동아시아 문화유산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책 '아웃라이어'와 소설 '파친코' 등도 읽고 나누었으며,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과정을 보며 과거 우리 조상들이 침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나라와 문화를 지켜나갔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우리 별반 친구들도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계속 배우며 관심을 갖고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동아시아/ 한국 문화가 나의 삶에 미친 영향들

별상 이지원



동아시아 역사 문화유산,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문화적 유산이 나의 생활이나 가치관, 그리고 정서에 미친 점들은 굉장히 많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인 만큼 미국 정서와의 문화 차이로 인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부분 또한 있으며 그것들은 내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도, 또는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긍정적인 영향을 먼저 소개하자면 역시 어른에 대한 예의, 공동체를 위해 본인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적절한 복종이다. 미국에는 유교 문화와 같은 문화가 없기에 어른에 대한 공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미국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어른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를 보일 때 부정적인 반응은 없었으며, 오히려 굉장히 좋아하거나 고마워하는 분들이 많았다. 적절한 복종 또한 마찬가지다. 개인의 의견을 스스럼없이 표현하는 미국의 문화와는 다르게 어른들의 말이나 상황에 따른 규칙에 대해 복종하는 것이 대부분 상황을 쉽고 빠르게 간결하게 해결해 준다. 공동체를 위해 본인을 희생할 수 있는 정서의 예로는 '팬데믹으로 인한 백신 접종'을 들 수 있겠다. 미국을 포함한 서양 국가는 '공동된 사회'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커 단지 본인의 이익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상황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한국은 '개인의 가치'보다는 '공동된 사회'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해 다른 사람들과 국가에 더이상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나 또한 백신을 맞을 때에 '나의 안전' 또한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더 이상의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접종을 했으며 이와 같은 가치관은 단지 자신뿐만

아닌 사회나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은 타인에 대한 지나친 의식과 교육열이다. 개인보다는 사회로서 공동된 무언가를 추구하는 한국의 문화는 개인의 다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 조금이라도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이상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정서에 익숙해지다 보니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잘 말하지 못할 때가 많다.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강해지니 자신을 강하게 어필하는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맞지 않고 살아남기가 힘들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생활할 때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교육열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인데, 좋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국의 분위기와는 달리 미국은 그런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과정에서 '왜 한국인/동양인들은 저렇게 과하지?'라는 선입견을 굳힐 수 있으며 나 또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을 굳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다 보니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가 어려워지고 자꾸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위축될 수 있다.

나에게 미치는 동양/한국의 역사 문화유산은 타인에 대한 예의, 공동체 의식, 교육열 등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유산이 영향을 미칠 수도, 또 그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이나 부정적인 영향이냐에 따라서도 바뀔 수도 있다고 믿는다. 이처럼 각각의 문화에 따른 가치, 개념,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이 다 다르기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특정한 문화가 절대적으로 맞거나 틀렸다고 인식되면 안 된다고 느끼는 바이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영화감독/ 소설 '파친코 Pachinko'를 읽고

아름다운상 윤지환

저는 커서 영화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동안 봉준호 감독처럼 좋은 영화와 같은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곳 옥스포드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며 저의 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내용의 영화가 아니라 좀 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영화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많은 사람들이 봐서 작은 움직임들이 일어나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요즘 저나 친구들은 혹시 비슷한 사고가 또 생기지 않을까 하며 제대로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옥스포드 학교 사고의 희생 중 한 명인 저스틴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고 장기간 기증하고 떠났습니다. 원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이지요.

우리는 홍익인간을 배웠습니다. 홍익인간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사랑을 베푸라는 뜻을 말합니다. 언젠가는 꼭 그런 스토리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영화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소설 '파친코'를 읽고

이야기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부산 영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여 일본으로 이주한 한 가족의 이야기이다.

어머니 선자로부터 솔로몬까지 가난하고 힘든 이민 생

활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었다. 언어와 문화에 대한 억압과 차별은 나도 이민자의 자녀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소설이지만 그 시대에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다면 2021년 전 세계의 많은 이민자들이 지금처럼 편하게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으로 이겨낸 것처럼 나도 앞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Outlier' 를 읽고: 아시아인들이 서양인들보다 수학을 잘 하는 문화적 배경은?

고운상 한준혁

책 'outlier'에서 저자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과 문화에 대한 개념은 매우 독특합니다. 7장과 8장에서 저자는 세계의 다른 문화를 설명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분석과 논리를 이용하여 그 문화를 바꾸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저자는 왜 아시아 문화가 서양 문화보다 사람들이 수학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먼저 어떻게 아시아 문화가 서양 문화와 다른지를 자세히 설명함으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아시아 문화권의 농부와 서양 문화권의 농부의 생활 방식의 다른 점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아시아 농부는 쌀을 재배합니다. 그런데 쌀농사는 아주 집약적인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일 년 내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반면 서양 농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력으로 재배가 가능한 밀과 감자 같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시아 농부보다 더 쉴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들이 결국 오늘날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어떠한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반면 서양 사람들은 태생부터 아니면 처음부터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할 수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배워 왔습니다. 역경에 대한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아시아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시도하고 성공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아시아인들이 서양인들보다 더 똑똑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단지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난 항상 어떤 사람은 수학적인 사람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독서를 즐기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생각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둘 다 잘했지만 둘 중 하나에 절대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공부 잘했던 것이 아니라 내 부모와 조상들의 영향으로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항상 내가 최대한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사는 이 한국 문화는 지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하기 이전, 수 천 년 동안의 한국인의 문화유산의 결과였습니다.

가르치고 소통하는 멋진 과학선생님

예쁜상 김찬영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 중에서 선생님이 제일 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과학과 관련된 선생님



을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과학이라서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과학 시간에는 과학적 정보와 지식을 배울 수 있어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런 기본 지식을 배워 발전시켜 사람들의 상황이 옛날보다 편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되면 새로운 다른 선생님들과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좋아요. 학교 클럽 활동도 같이 하고 싶어요. 아이들과 서로 소통하며 일하는 것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과학적 지식과 함께 책임감과 자신감을 키워주고 싶어요.

선생님은 참 보람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절약할 수도 있어요. 이 절약된 돈은 아이들에게 선물도 줄 수 있고 기부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총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저의 꿈은 많지만 내가 가장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할 거예요.

사람들의 건강을 돕고 생명을 구하는 의사 선생님

강술대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 보람과 기쁨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또한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구하



는 의사들의 용기와 헌신을 존경합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갖게 된 계기는 코로나가 발생하여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인 상황에서 많은 의사들이 마스크와 같은 보호 장비도 없이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헌신을 보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외과의사처럼 긴급 상황에서 수술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아과나 일반 내과 의사처럼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게 돕고 최 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의사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어떤 의사가 될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처럼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수입을 가지면서 보람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서

김 단

사람들의 꿈은 다 다르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꿈은 바로 그 다른 '생각'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구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랑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 궁금했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계속 노력하면서 배울 것입니다.

나의 꿈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왜 다른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마음에 고민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Outlier'를 읽고: 동아시아 문화유산과 나의 정체성

김예원

우리 문화는 서양 문화에 비해 학문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인은 수학을 더 잘 합니다. 동아시아의 문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서양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미국 문화에 비해 우리의 문화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더 강해지고 성공할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강조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더 집중하게 하고 똑똑해질 수 있게 압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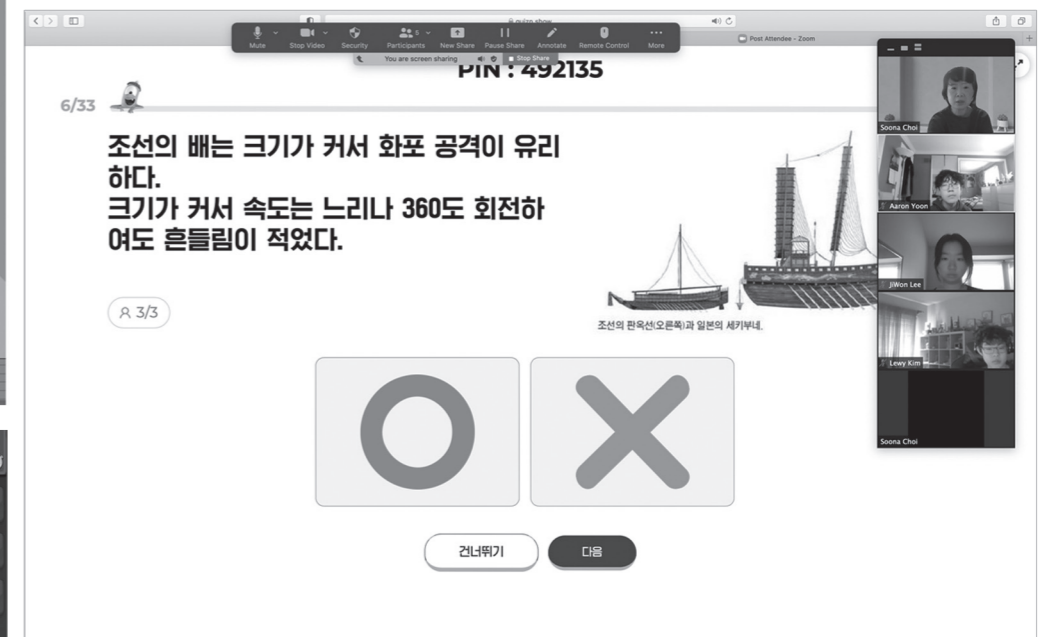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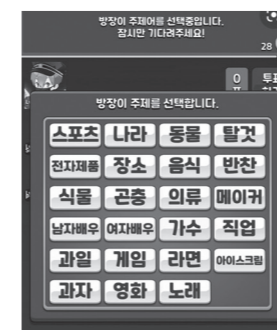


문제 해결에 대한 문화적 관점에서 Malcolm Gladwell의 Outlier에서 다루듯이 동아시아 언어의 숫자 체계는 영어 및 서양 언어와 매우 다릅니다. 영어는 매우 불균형하고 불규칙한 숫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의 많은 언어들 중, 특히 영어에서는 숫자가 높을수록 숫자가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숫자가 짧아서 머릿속에서 암기하기 쉽습니다. 언어가 쓰이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11(십일)은 10(십)+1(일)이고 영어에서 11(eleven)은 10(ten)과 1(one)과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복잡하고 단위가 높은 수학 문제를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푸는 방법을 단순화 시킵니다. 이 때문에 동양인들은 다른 나라보다 수학을 더 잘 이해합니다.

문화유산은 세대에 걸쳐 우리 삶의 성공 또는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관습 또는 특성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가 물려받은 문화유산은 존경의 문화인데, 이는 한국에서 가장 흔한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 특히 연장자를 존중하는 문화는 저를 포함한 많은 한국 가정의 전통이자 규칙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화적 유산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됩니다. 이것은 문화적 유산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유사점을 찾는 방법을 만듭니다. Malcolm Gladwell의 Outlier에서 말한 것처럼 '문화적 유산은 강력한 힘입니다. 그들은 깊은 뿌리와 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유산을 통해 사람들이 더 강력하고 그들의 문화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아시아의 문화는 제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가족을 제외하고는 동아시아 문화의 진정한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과 서구 문화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어울리지 않음'을 자주 느꼈습니다. 제 주위의 많은 동아시아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는 제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느끼는 방식과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미국 문화에 대한 배움이 꼭 필요한 곳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 문화는 여전히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세종학교 수업시간을 통해서 젓가락을 사용하거나, 전통 음식을 먹거나, 전통 놀이를 통해서, 여러 K-culture를 통해서, 심지어 가정에서 부모님께 배우는 예절을 통해서 여전히 한국 문화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더라도 나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정체성은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하늘반

교사 서나영

세종학교 하늘반을 가르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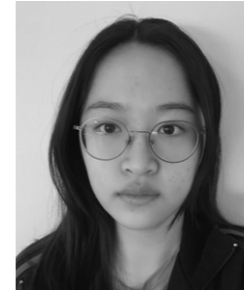
디트로이트 세종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처음으로 맡게 되어,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설렌 기분을 안고 시작한 지가 어느덧 일 년이 다 되어 갑니다. covid-19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계속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서로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매주 화면으로 만나는 우리 학생들의 얼굴이 또렷이 그려지고 또 기다려집니다. 우리 반 만 언니 지민이, 똑돌이 결이, 똑순이 도희, 귀여운 솔이, 자유분방한 진영이와 카리스마 수혁이, 진지하고 과묵한 준기, 만남이 기대되는 희현이... 아직 서툰 부족한 선생님이지만 우리 의젓한 학생들이 매번 선생님을 도와주고 함께 이끌어 주어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롭습니다.

곧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우리 반 학생들에게 팬데믹 상황에서의 한글 줌 수업은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테지만, 다가올 미래에 맞서는 데 귀중하고 값진 경험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한글과 한국 문화, 한국 역사에 대한 호기심으로 배움의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매 수업에 들어오는 하늘반 학생들을 생각하면 저는 오늘도 열심히 해 보리라 다짐해 봅니다. 장차 세종학교 이름을 빛내줄 훌륭한 인재들이 되길 바라며... 하늘반 친구들 파이팅!



내가 닮고 싶은 한국인: 운동주

세종 대상 김도희



제가 닮고 싶은 한국인은 운동주 시인입니다. 운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았고 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제가 이 시인을 닮고 싶은 이유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자신이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창씨개명을 하였어도 그것에 대한 잘못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반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러한 잘못을 시로 적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자아성찰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독립운동가로서 조선의 독립을 바라는 마음을 시로 적었습니다. 저도 운동주 시인처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1917년 12월 30일, 북간도 명동촌에서 운동주 시인이 태어났습니다. 당시 명동촌은 민족교육, 독립운동, 신앙생활을 지향한 조선인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주 시인은 어려서부터 마을과 기독교인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925년에는 명동소학교를 입학하였는데 고종사촌인 송몽규와 친구들과 함께 문예지인 '새명동'을 발간하였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도 운동주는 자신의 습작기에 시를 적으며 문학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습작기를 보면 고향마을의 자연과 환경들을 서정적이고 간결한 시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41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생각하던 운동주는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을 하여 성씨를 히라누마로 바꾸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명을 하였어도 운동주는 괴로워하며 그 마음을 '참회록'이라는 시에 적었습니다. 1942년 3월쯤에 운동주 시인은 일본으로 가서 도쿄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는 한글로 시를 적으며 조선의 독립을 바라고 일본에 있는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는 시들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1943년에 운동주 시인은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조선의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고 조선 독립을

실현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945년 2월 16일에 운동주 시인은 27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운동주 시인은 일본으로 가기 전 연희 전문대를 졸업하려고 하였을 때 시집을 출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외압 때문에 출판하지 못하고 친구인 정병욱에게 시집을 맡기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운동주 시인이 죽고 3년 후 친구 정병욱이 그 시집을 출판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1948년에 발간되었습니다. 그의 시집을 보면 일본어를 써야 했던 일제강점기 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언어인 한글로 시를 적은 운동주 시인의 신념을 볼 수 있습니다. '서시', '별 헤는 밤', '자화상', '참회록' 같은 그의 시를 읽으면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힘든 시기에도 자신의 의지를 잃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던 운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서시'를 보면:

“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자아성찰을 하고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인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는 운동주 시인의 “마음”과 다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싶어서 노력했던 운동주 시인처럼 되기 위해서 저도 운동주 시인이 걸었던 그 길을 생각할 것입니다. 운동주 시인이 가지고 있던 그 신념을 갖기 위해 저도 저의 길을 걷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에 영향받기보다는 저의 관심, 생각이나 정체성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운동주 시인이 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통해 저의 신념을 표

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명받았던 자신의 잘못을 계속 반성하던 윤동주 시인의 모습을 닮기 위해 저도 제가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여 반성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통해 저의 잘못을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닮고 싶은 한국인: 김소희

하늘상 이지민

“때는 2005년. 어느 20대 여성은 동대문 시장에서 산 옷을 인터넷 옥션에 올려 판매를 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성공 이야기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제가 닮고 싶은 한국인은 국내 최대 여성 의류/ 화장품 회사 “스타일난다”의 창업자 김소희 대표입니다. 김소희 대표는 인천의 한 전문대학에 재학 중에 스타일난다를 만들었습니다. 22살이라는 어린 나이 입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시작하고 단 몇 년 만에 이렇게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것에 매우 놀랍니다.

또한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한 노력에 대해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처음 스타일난다를 런칭할 때는 동대문 시장에서 도매로 산 옷들만 판매했지만, 점점 고객들이 늘어나고 회사의 규모가 커지자 자체 제작 옷들도 팔기 시작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9년에는 의류 시장뿐만 아니라 화장품 시장에 발을 들인 것도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 수 있었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디자인과 패션에 관심이 있는 저는 김소희 대표의 뛰어난 창의력과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꾸준함을 닮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소희 대표의 명언 중

에 하나는 바로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 된다. 옷이 아니라 문화를, 코스메틱이 아니라 매력을 만든다.”입니다. 저는 이 문구가 대표님의 의지와 스타일난다의 의도를 정확히 표현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본인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만트라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린 김소희 대표가 아주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여행 소개 [프로젝트]

강솔푸른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가장 큰 항구다. 그리고 부산은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부산에는 멋진 관광명소들이 많다. 그중에는 시장, 바다, 온천, 그리고 놀이공원 등이 있다.



부산의 대표적인 어시장인 자갈치시장에서 다양하고 신선한 해산물을 사기도 하고, 그곳에서 바로 먹을 수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도 부산에 있다. 부산 신세계 백화점은 두 개의 건물, 두 개의 푸드코트, 아이스링크, 스파, 옥상정원 등이 있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도 22년 3월에 새로 개장할 예정이다. 해안 절벽 위에 있는 오륙도 스카이워크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다.

또한 부산의 유명 해수욕장인 해운대에서는 다양한 축제를 개최한다. 그중 하나는 부산국제영화제인데, 매년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다. 2021년 부산국제영화제는 75개국에서 출품한 300편의 영화가 초청되었고, 일반적으로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들과 영화 제작자들이 심사를 한다. 제니퍼 로렌스 등 전 세계적 유명한 인사들도 이 영화제에 자주 참석한다.

부산은 음식으로도 매우 유명한 도시이다. 부산을 방문하면 밀면은 꼭 먹어봐야 한다. 이 차가운 국수는 한국전쟁 때 냉면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을 때 만들어졌다고 한다. 밀면은 종종 오이와 배가 함께 나온다. 부산의 유명한 길거리 음식 중에는 씨앗호떡도 있다. 이 음식은 KBS 『1박 2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는데, 계피와 설탕이 든 호떡 안에 깨, 해바라기씨, 호박씨가 들어간다. 또 다른 인기 음식은 동래파전이다. 동래파전은 낙지, 굴, 새우, 부추를 넣은 부드러운 촉촉한 요리다. 부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는 돼지국밥이다. 따뜻한 돼지국밥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많다.

부산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부산은 여름에 가면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짐을 쌀 때 피부에 달라붙지 않는 가벼운 옷을 챙기는 것이 좋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KTX를 타고 부산에 가는데, 가격은 일인당 약 70달러이고 서울역에서부터 2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정리하자면 부산은 할 것과 먹을 것이 아주 많은 좋은 여행지다. 여러분도 부산을 방문해 다양한 먹거리와 유명한 관광지에 가 보길 추천한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일본의 영향 [프로젝트]

김 결

1. 종교

<불교>

1912년에 정부는 각 절의 불교 관리들에게 절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일제강점기들은 한국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고유의 종교적 습



관과 신념을 없애기 위해 대한불교의 일본화를 추진했습니다.

<기독교>

일본은 한국 기독교를 약하게 만들려는 법을 내렸습니다. 여론을 통제하여 반일 감정을 약화시키고, 한국을 일본으로 흡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식민 정서를 퍼뜨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기독교는 여전히 한국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교육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정부는 한국에 4000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한글이 표준어로 도입되면서 일본은 문법을 많이 바꿨습니다. 1929년 5월만으로도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수는 공립학교 2162개, 사립학교 640개, 총 2602개의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일본은 조선인에게 일본어만 배우도록 강요하고, 일본 성을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인은 한자로 쓰여진 역사와 문화를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역사 문서는 학자 외에는 아무도 읽을 수 없습니다.

3. 문화

1988년 한국 정부는 일본 문화를 한국에 허용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소개되면서 한국은 천천히 한국 스타일을 추가하여 한국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한국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TV 프로그램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이wai 순지의 영화 “러브레터”가 한국에서 방송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봉한 최초의 영화로 국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일본은 드라마로 통해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바꿨습니다. 한국인은 일상과 일본인 가족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일본에 대한 인상을 향상시켰습니다.

4. 언어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은 일본어를 한국의 공식 언어로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어에 새로운 단어들을 도입했습니다. 대부분의 단어는 서양에서 빌려온 영어 단

어듭니다. 일본은 서구 국가들과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때 빌려온 단어들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그 단어들이 한국어 속으로 들어옵니다.

5. 민족주의

일제는 조선인을 지배하고 조선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박탈하여 지배하였습니다. 그 지배로 인해 조선인들은 거세게 저항했고, 인민들은 단결했고 민족주의자들은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부에 저항하고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며 거리로 행진했습니다. 일본은 통치 기간 동안 한국에 많은 기반 시설을 만들었지만 민족주의자들은 여전히 일본에 대해 강한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 후 몇 년이 지났지만 요즘에도 한국은 일본의 어떤 문화적 산출물에도 여전히 싫어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 결론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거의 80년이 지났지만, 일본 식민지의 영향은 오늘날에도 한국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영향은 한국의 만화와 TV 프로, 한국의 절, 교회, 학교, 심지어 한국어 자체에서도 일본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35년 동안 한국을 점령했지만, 그의 영향은 뚜렷합니다. 일제 강점기는 우리가 무조건 기억해야 되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닮고 싶은 사람들

김준기

나는 영화 'UP'의 Russell이라는 캐릭터를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Russell의 약간 짜증나지만 사랑스러운 성격 때문에 그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나를 닮은 점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끌렸습니다. 여덟 살 때 본 이 영화는 내 정체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결코 Russell 이상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서툰고 수줍어하는 통통한 아시아 아이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나의 자존감은 낮아져 갔고, 그로 인해 고민했습니다. 어른들은 나에게 “에이, 넌 약간 뚱뚱하지만 괜찮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나는 계속 자존감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그러면 실패자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영 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팀에는 수영뿐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아시아계 상급생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강한 체력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Russell을 닮지 않은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의 그럭저럭 괜찮은 상태에 안주하고 싶지 않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대회를 위해 새벽 5시부터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훈련에 참가할 때 나는 역도 들기를 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그건 운동 선수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도를 들면서 점점 몸이 건강해지고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외모 외에 정신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내 성격이 변하고 정신적으로 강인해지면서 운동 이외의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몸이 따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마음에 드는 여학생에게 데이트를 신청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전의 생각들이 바뀌었습니다. 어릴 적 Russell의 이미지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뒤에 있습니다. 나는 지적이고 건강한 아시아 청년으로 변했습니다. 아직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나 자신과는 거리가 멀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룬 발전이 자

랑스럽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를 흥분시키고 매일 더 나은 나 자신이 되려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내가 닮고 싶은 한국인

이진영

내가 닮고 싶은 한국인은 BTS에 지민이다. 하지만 내가 닮고 싶은 사람으로 지민을 정한 이유가 보기에 잘생겼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태도 그리고 자기의 꿈을 위해 자기의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모습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아이돌들은 사생활이나 학교생활들을 포기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자세를 나는 높이 본다. 지민만이 아니라 많은 아이돌들은 많은 시간들을 노래와 댄스 연습을 위해 쓰고 있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연습생 중에 유명해 지는 그룹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에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또한 그 동안 해보지 않은 일이라도 거기에 맞추고 노력하는 자세를 닮고 싶다. 한참 전에 지민에 대한 비디오편을 본 적이 있었다. 지민은 아이돌이 되기 전에 현대무용을 전공했었는데 그의 춤 스타일이 아이돌 댄스와 맞지 않아 그 그룹에서 쫓겨날뻔했다. 지민의 부드럽고 자유로운 댄스 스타일이 아이돌의 강하고 기술적인 댄스 스타일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통해 지민은 자유로운 현대무용과 기술적인 댄스를 함께 출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힘든 다이어트와

혹독한 트레이닝을 통해 멋진 몸을 만들 수 있었다. 아이돌이 되면서 신체이형장애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것은 완벽한 외모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심각한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병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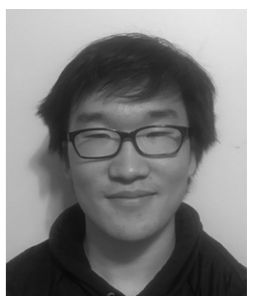
요즘 여기저기 지민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 웃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친구들에게 얘기할 때 내 감정의 변화가 (기쁘거나 슬픈 것이) 친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자주 느낀다. 지민처럼 나도 항상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민이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가 그의 음악과 그의 그룹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열정과 의지를 나도 내 삶에서 가지고 싶다고 생각한다. 지민을 단순히 케이팝에 아이돌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한 노력이나 태도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고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세종학교를 졸업하며...

이희현

저는 유치부 때부터 세종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세종학교에 오는 시간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오는 게 힘들었고, 그 시간에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 덕분에 열심히 세종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세종학교에서 보낸 재미있는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여러 사람들과 친구도 되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세종학교에서 했던 여러 가지 수업들은 나에게 다양한 것들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새로운 것을 배



우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종학교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감사하고 가르쳐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닮고 싶은 한국인

한수혁

내가 가장 닮고 싶은 한국인은
 축구 선수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 선수가 되
 고자 하는 꿈을 위해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2009년
 독일로 가서 그의 첫 축구팀인
 함부르크 FC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생의 어린 나이로 홀로 다른 나라에 가서 적응
 하면서 힘들었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성적을 보여
 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1-2012 및 2012-2013시즌에서 신
 인 선수로 인정받으며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다른 팀으로 이적해 가면서 당시 클럽의 최고 이적 수
 수료인 1000만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팀에서
 2년 동안 머물며 여러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42경기에서 17골을 기록하였고 2014-2015년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그

런 다음 2015년 8월에 현재 소속팀인 영국의 잉글랜
 드Tottenham Hotspur로 2200만 유로를 받고 이적
 했습니다.

손흥민은 2019년 12월 7일 번리 FC와의 경기에서 최
 고의 솔로 골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번 리의 프리킥에
 서 손흥민은 자신의 팀 박스 상단 18 야드에서 공을
 받아내어, 놀라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1.6초 동안
 91.3 야드를 뛰었습니다. 결국 상대 팀 박스에서 여러
 명의 수비 선수들을 제치고 최고의 골을 만들어 냈습
 니다. 이 일은 여러 나라의 스포츠 뉴스에 소개가 되었
 습니다. 그는 AFC(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최고의 국제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가졌던 꿈과 도전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의 꾸준한 노력을 존경하고 닮고 싶습
 니다.

졸업생의 글

세종학교를 졸업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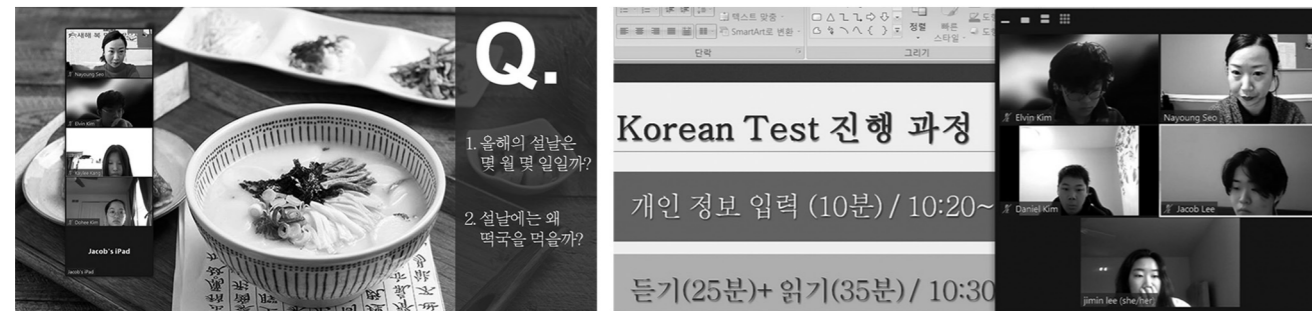
이지민

제가 어릴 때는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가 되면 마냥 좋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꿈꾸던 졸업식을 코
 앞에 두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많은 변화와 성
 장을 앞서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초등 2학년부턴 지금까지 세종학교를 십 년 가까이 다니면서 배우고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었을뿐만 아니라 혼자서 이해하기 어렵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매주 수업을 통해서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래 전에 만나서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좋은 친구들도 사귀어서 정말 기쁩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한번도 귀찮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몇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보람
 이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마 세종학교를 통해서 간 이순신 여름 캠프일 것입니
 다. 이곳에선 일주일 동안 다른 한글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국에서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흔적들이 가득한 여수에 직접 가보니 수업 중에 미처 다 배우지 못했던 한국의 역사를 몸소
 체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 명소들도 방문해 보고 예쁜 정치들도 구경해봐서 더욱더 유익한 시간
 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친구 클럽 회장으로써 깨우친 것도 많습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어린 세종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
 해 저도 매주 꼼꼼히 수업을 준비했고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친구클럽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실력은 바로 적절한 리더십 입니다. 제 또래의 다른 봉사자 학생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 협동심을 키우
 고 정확한 의사 소통을 하는 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스케줄을 정리하고 다른 학생들을 잘 이끄는 일을 처음에는 쉽
 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봉사자 학생들과 성공적으로 올해 수업들
 을 마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올해와 작년에는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세종학교 수업을 했지만 저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선생님들 덕분
 에 마지막 학기들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아시아계, 특히 한국인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말 동안만이라도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세종학교 커뮤니티에서 배우고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아주 특별했었고, 그 경험들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세종학교를 떠날 때가 되었지만 여태까지 배우고 느꼈
 던 것들을 잊지 않고, 대학 시절과 그 이후에도 소중히 간직할 예정입니다.



나의 성장과 함께한 세종학교



손유진

(2021년 세종학교 졸업, University of Chicago 재학 중)

보통 학생들은 아마 토요일에 다니는 한글학교를 그저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것처럼 대부분 한글학교를 시작하고 다닌다. 50년 전에도 똑같았을까. 그 때는 주변에 같은 한국인 친구, 가족들을 더욱 보기 힘들었을 시절이었기에 지금보다 더 한국 문화와 언어를 소중히 여기고 배우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지금이나 50년 전이나 왜 우리는 주말에도 학교를 다니며 우리 언어와 역사문화를 배워야 할까.

대학에 와서 만난 한국인 친구 한명은 캘리포니아 출신 교포 친구였다. 한국 이름이 따로 있으나 그 이름을 자신있게 발음하지 못 할 정도로 한국말을 떠듬거린다. 한인들이 많은 지역에 살면서도 한국어를 모르는 그 친구는 그동안 한국어를 몰라왔던 게 후회되며 여름 방학이 되면 꼭 한국으로 여행가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목표라고 얘기했다. 수학 스터디 그룹에 있는 또 다른 친구는 동유럽계 유대인인데 나도 한국 이름이 있다며 자랑하였다. 알고보니 그 친구의 어머니 모국이 한국이었다. 어쩐지 그 친구는 인기있던 한국 걸그룹의 해체를 너무나 아쉬워하며 나보다 k-pop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어색한 발음으로 각자의 한국 이름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한 바탕 웃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교포 3세인 그 친구들은 겨우 자신의 이름을 발음하는 정도였지만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게 목표라고 하였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며 즐기고 있었다.

그걸 들으면서 나는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50년 전에 미시간에 살면서 세종학교에 다녔던 분들도 자식과 손자손녀들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주고 한국어와 문화를 전달해 주려 노력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에 와서 보니 다국적 배경인 친구들 사이에서 나와 나의 배경을 잘 아는 것이 내 아이덴티티에 얼마나 중요한지 더 많이 깨닫게 된다. 내 문화를 알고 이해하면 사춘기때 느끼는 문화 갈등이 오히려 덜 했다는 것을 주변 친구들로 부터 많이 들었다. 또 내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잘 알면 다양한 문화가 있는 미국 사회에서 내 장점을 알릴 수 있고, 다양한 배경의 낯선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교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친구들이 한번 세종학교를 다니면서 경험 했던 것들을 잠시 떠올렸으면 한다. 물론 아침 일찍 등교해서 처음에는 피곤하지만, 들어오자마자 나와 같은 친구들과 나란히 앉고, 선생님께서 익숙한 목소리로 수업하시고, 학교 아니었으면 따로 배우지 않을 한국 문법과 역사, 또는 전래동화와 시를 배운다. 그리고 다리가 조금 빠근해질 때 쯤 선생님을 따라 태권도, 전통 무용, 또는 사물놀이 수업을 통해 말로만 듣던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본다. 그리고 수업뿐만 아니라 내가 열정을 가진 클럽에서 한국 커뮤니티 친구들과 함께 활동도 할 수 있다. 멀리서도 한국의 이런 다양한 면들을 배울 수 있는 세종학교는 나에게도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 나는 내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런 바탕 위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었다. 또 내 아이덴티티는 내 스스로 혼자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종학교와 같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교류하면서 발달 시킬 수 있다.

친구들이 지금은 해야 할 업무라 여기고 한글학교에 다니지만 같은 언어와 역사문화를 배우는 학교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꾸준히 학교에 열심히 다니길 바란다.

세종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면 아이들의 성장기를 하루에 다 체험하게 됩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1교시,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2교시,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인 무궁화, 장미 반이 3교시입니다. 정말 하루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3시간 만에 가상체험으로 유치원 아이를 키워서 초등학교를 졸업시키는 느낌입니다. 나이에 따라 특징도 다르고, 반응도 참 다릅니다. 또 특이한 점을 꼽는다면, 다양한 언어 환경의 아이들이 함께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한 수업 시간 안에 가사가 쉬운 노래와 어려운 노래를 골고루 접하게 하지 않으면 중간에 아이들의 관심이 꺾이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접하는 문화로서의 음악을 세종에서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의 음악 교과서 노래, 창작/인기 동요, 또는 미국 동요의 한국 변안 동요 등을 대체로 반에 적합한 수준과 주제에 맞추어 배우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 어린 학생들 반으로 토끼, 나비, 개나리 반 아이들은 경험은 적지만, 가장 호기심이 많고,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순수하게 잘 표현합니다. 이른 아침 첫 시간이라 컴퓨터 화면 앞에 꼬물 꼬물 잠이 덜 깬 채로 모입니다.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하면 수줍게 손을 꼭지락 거립니다. “흔들, 흔들, 흔들, 어깨 흔들어~” 등의 신체 부위를 흔드는 노래에 아이들은 반응을 하며 조금씩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노래를 복습하면, 제법 안다고 음소거를 해제하고 크게 부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매 수업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각자의 생각을 간단한 그림이나 말로 표현해 가며 나눕니다. 그리고 그 주제와 연관된 노래들을 듣거나 불러보거나 율동하는 시간을 가진 후 헤어지게 됩니다. 가끔 본인의 그림에 심취해서 노래 부르기를 소홀히 해도 괜찮습니다. 귀는 열려있고 다음 시간에 반복하다보면 아이들은 ‘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봄비나 씨앗에 관한 노래를 한 번쯤은 기억해 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2교시는 대화, 난초반 아이들인데 일단 학교생활을 하며 사회화가 되어서인지, ‘선생님’ 하고 큰 소리로 부르기도는 꼭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점잖게 손 이모티콘을 보내주고, 심지어 채팅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제에 관해서 생각을 나누는 것은 웬만하면 화이트보드에 적어서 보여주는데,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귀기울이면 깊은 생각을 나누어 줍니다. 주제와 관련된 노래를 배울 때, 음표와 박자, 등의 기본 음악 이론을 가르쳐 주고 악보를 읽는 연습도 가끔 하면서 리듬악기를 노래와 함께 연주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노래만 하라고 할 때보다, 노래하며 리듬악기로 1박과 3박에 연주하기 등의 고난이도 미션을 더 잘 소화해 냅니다.

2교시와 3교시 사이에 쉬는 시간은 저에게 참 즐거운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3교시인 무궁화, 장미 반에서 한 명의 아이가 미리 들어와서 저와 수다를 떨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3-4명이 들어와서 각자 근황 이야기도 들려주고, 저도 제가 하는 음악에 대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리코더 연습도 먼저 하고 싶어 해서 본의 아니게 수업을 일찍 시작하기도 합니다. 학기 초반에는 음소거를 지나치게 성실히 하

는 아이들 때문에 당황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나누고 이유 및 계기를 발표하는 과제를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며, 점차 어른스럽게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또한, 아이들도 제가 매시간 화이트보드에 이론 및 악보보는 법, 또는 주제에 대한 생각 등을 발표해달라고 요구하다 보니, 이제는 발표가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특히 얼마 전, ‘고향의 봄’ 노래의 가사를 미시간에 대한 노래로 바꿔보자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이 하나 하나 발표한 내용으로 받아쓰기를 시작했는데, 5분도 안 되어 1곡을 완성시키는 것을 보고 아이들의 저력에 감탄했습니다.

리코더를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것은 소리가 컴퓨터 오디오에서 잡음으로 인식되고 소리가 제거되는 경향이 있어 여러 번의 시행 착오를 거쳐서 이제는 반주 및 동영상 미리 만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종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음악적 학구열도 높아서 그런지, 아이들 연주 실력이 정말 빨리 늘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님께서 아이가 9월에는 ‘도’ 소리도 어려워했는데, 3월이 되니 제법 여러 곡을 연주하는 것이 신기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참 고맙고 뿌듯했습니다.

오르간 및 피아노 연주자인 제가 아이들에게 노래를 위주로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처음에는 큰 부담이었지만, “괜찮아요. 저도 노래 잘 못 불러요.”라며 격려해주고 잘 따라 주는 학생들이 있어 아이를 3시간만에 키우는 것 같은 이 과정을 매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친구클럽

친구클럽은 저학년 세종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적을 둔 동아리입니다. 원래는 중학생, 고등학생 멘토들이 어린 학생들의 세종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곳이였지만, 올해와 작년은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멘토들이 직접 레슨을 매주 계획하고 가르치는 활동을 했습니다.

세종학교 수업에서 미처 배우지 못했던 다양한 주제를 소개하고 어린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에서도 가능한 게임과 재미있는 활동들을 기획했습니다. 수업 내용을 다양화 하기 위해 봉사자들은 돌아가며 파트너를 지어서 레슨을 구성했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더욱더 잘 어울리게 되었고 처음에 어색해했던 아이들과도 많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자주 했던 활동은 책을 읽고, 내용에 관련해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다음, 다 같이 발표하고 이야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반에 마이크를 꺼놓고 잘 참여하지 않던 아이들이 점점 편해지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도 하고 책도 읽는걸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다시 도서관에서 대면 수업을 할 예정이니 내년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 K 클럽

| 프로젝트K / Project K |

“프로젝트K란?”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K 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지원입니다. 프로젝트K 클럽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며 미국 사회에 올바르게 알리는 클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 웹툰과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를 알아가고, 리서치를 하며 정확하고 바른 정보를 정리해 SNS에 한국을 홍보합니다.

또한 세종학교 각 가족으로부터 한국책을 기부 받아 노바이 및 어번힐즈 도서관에 기부하는 활동을 했으며, 새로운 학년도에도 이와 같은 의미있는 활동들을 더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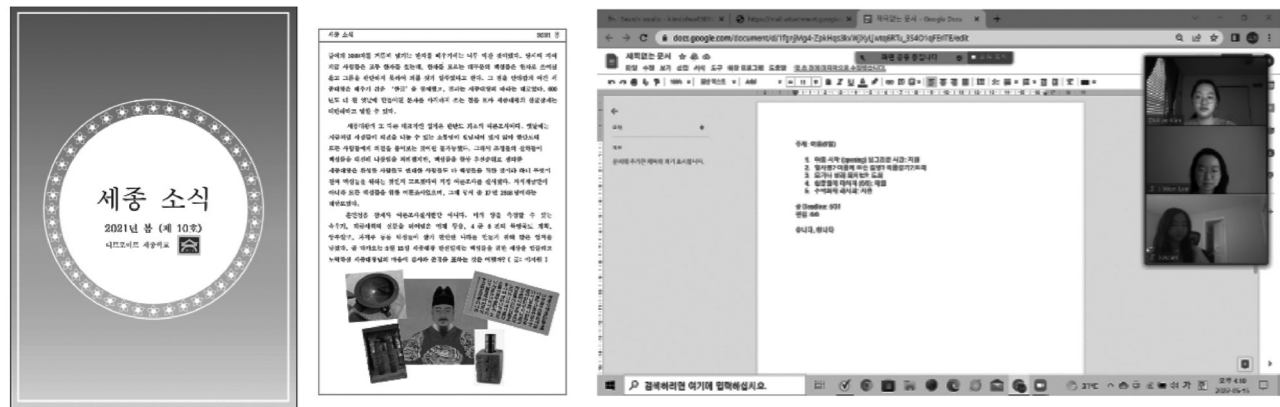
(인스타그램 계정: sejong_projectk)

세종 Newsletter Club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뉴스레터 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도희입니다. 세종 뉴스레터 클럽은 세종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소식들 뿐만 아니라 클럽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여 자기가 쓰고싶은 글들도 쓸 수있는 클럽입니다.

작년에는 클럽 학생들이 “봄”이라는 주제로 “미나리 감상문”, “봄철 알레르기”, “봄꽃들의 꽃말”, “세종대왕의 업적”, 그리고 “달래무침 레시피” 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아이디어로 글을 쓰다보면 글쓰기 실력도 향상되고 한글로 적은 자신의 글을 보고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글로 글을 쓰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면 학생들과 선생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글들을 정리하고 세종소식 표지를 만들고 적절한 사진을 넣는 작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뉴스레터 클럽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 뉴스레터 클럽은 달반부터 하늘반까지 세종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세종소식을 보고싶은 세종학교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Rise

저는 K-rise 클럽에서 회장을 맡고있는 김결입니다.

저희 K-rise 클럽은 현재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한류 중 하나인 케이팝을 우리 세종학교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배우는 클럽입니다.

케이팝의 대표그룹인 BTS와 블랙핑크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기아이돌들의 춤과 노래를 배우고 익히며 건강하고 밝은 케이팝을 체험하게 됩니다.

K-rise 클럽에는 6학년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매주 세종학교 방과 후 1:30-2:30 함께 모여 연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일 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연습한 춤과 노래는 세종학교 “세종예술제” 무대위에서 공연으로 보여질 예정이니 많은 친구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021-2022 디트로이트 세종학교/Detroit Korean School

케이라이즈 클럽 K-Rise Club

케이라이즈 클럽은... 이번 학기 케이라이즈 클럽은 매월 첫째 토요일 학교 수업 끝나고 모입니다. 케이팝 댄스, 노래, 등등 퍼포먼스를 하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한국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클럽입니다. 새로운 멤버들을 많이 만나길 기대합니다!

K-Rise Club Is...
This semester's K-Rise club will meet on the first Saturday of every month after class. In this club, we learn K-pop dances, songs, etc. and as we perform you can make new friends and learn more about Korea. We look forward to meeting new members!

정보:

- 누구: 6-12학년 학생들
- 언제: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1:30 - 오후 2:30
- 어디: Zoom(링크 후후공지)

Information:

- Who: 6-12th Graders
- When: Every first Saturday of every month from 1:30PM -2:30PM
- Where: Zoom(Link will be sent via email)

구글 폼 가입링크/Google Form Signup Link:
<https://forms.gle/D9JRzsN3TV7ydrdH9>

제26회 세종 동요대회

- 대상 오소망 (매화반)
 금상 박준하 (개나리반), 최민서 (난초반)
 은상 김시원(나비반), 김정윤(나비반), 이레나(난초반), 김건희(난초반)
 동상 이기윤(나비반), 김성협(개나리반), 최혜서(개나리반), 최성우(매화반), 구유진(난초반), 이지우(난초반)

장려상

- 이은서, 전레오, 김영제 (난초반)
 박서연 (매화반)
 이민채, 이민서, 김하중 (개나리반)
 올리비아첸 (나비반)

노력상

- 최은서, 조수민 (매화반)
 서민솔 (개나리반)
 류유나 (나비반)
 최은우, 정하선, 주지희, 이기원 (토끼반)



제30회 세종 글짓기 대회

세종 대상: 김도희 (하늘반)

4학년 무궁화반: 김이준(무궁화상), 양지훈(아름다운상), 이라엘(고운상), 손하준(예쁜상)

5학년 장미반: 이도겸(장미상), 한민혁(아름다운상), 박나연(고운상), 박다연, 오지수(예쁜상)

6학년 해반: 최성민(해상), 박재연(아름다운상), 김이안(고운상), 김민준(예쁜상)

7학년 솔반: 오지효(솔상), 민건홍(아름다운상)

8학년 달반: 윤수은(달상), 수산나(달상), 하준형(고운상), 김초연(예쁜상)

9-10학년 별반: 이지원(별상), 윤지환(아름다운상), 한준혁(고운상), 김찬영(예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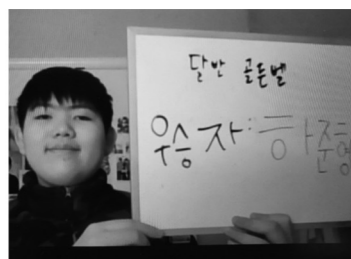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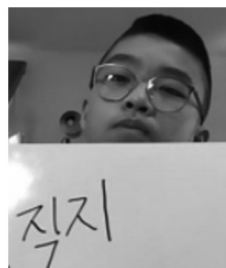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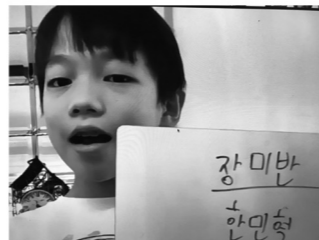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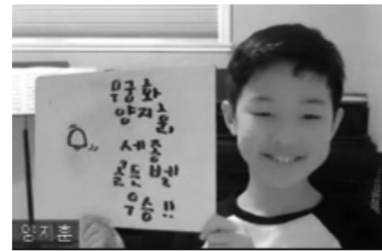
11-12학년 하늘반: 이지민(하늘상)





제15회 세종 골든벨 우승자

난초반: 이래나 / 무궁화반: 양지훈 / 장미반: 한민혁 / 해반: 김이안, 박재연
 솔반: 박연서 / 달반: 하준형 / 별반: 이지원 / 하늘반: 김도희



제30회 세종 이야기 대회

대상 김이준 (무궁화반)

유치부

1등 최혜서(개나리반)

2등 김정윤(나비반)

3등 김성협(개나리반)

노력상

토끼반: 최은우 / 나비반: 김시원 / 개나리반: 곽시울 / 매화반: 박서연

초등부

1등 양지훈(무궁화반)

2등 오은수(난초반)

3등 이은서(난초반)

노력상

난초반: 김가을 / 무궁화반: 안소현, 최예린

장미반: 김대영, 박나연, 박다연, 오지수, 이도겸

중고등부

1등 박재연(해반)

노력상

해반: 김이안, 안현진 / 달반: 최서진



세종학교 전 학교장 남영림선생님과 좌담회

일시: 2022년 2월7일

참석자: 남영림 (세종학교 7대 교장), 박경혜(세종학교 8대 교장), 오금주(세종학교 전 종달새반 담임), 김영희(세종학교 전 난초반 담임), 김선미(세종학교 9대 교장)

진행: 김선미 교장



-내용-

•김선미(이하 직함 생략)

인사- 안녕하세요?

많이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갑게 뵙는 자리에서 세종학교가 올해로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에 세종학교에서 오래 교장으로 역임하신 남영림 선생님을 모시고 세종학교의 변천과 세종학교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 김선미

먼저 세종학교에서 아주 오래 근무하신 남영림 전 교장 선생님께서 상당히 오래 일하셨는데 몇 년동안 하셨죠?

- 답: 남영림

1972년 개교때부터 교사로 봉사하여 2002년 그만 두었으니 30년 근무하였어요.교사로서 또 교감으로서 근무하다 교장으로 16년동안 근무하였고 2002년에 그만 두었으니 딱 30년 근무하였네요.

•질문: 김선미

상당히 오래 근무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가장 오래 근속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세종학교를 시작하셨어요?

- 답: 남영림

초대 교장선생님이신 김신형 선생님께서 한국의 이화여대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국어 교사를 하다 미국에 온 저를 알고 계시다가 세종학교를 개교하면서 함께 하자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세종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 밖에 지금은 돌아가신 김득렬 목사님께서 특별히 권고해 주셔서 주저없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질문: 김선미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그 어느 선생님들보다 오래 세종학교에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이세요. 세종학교에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답: 남영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오래 오래 좋은 관계로 지속적으로 지내고 있는 것 처럼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다는 것이 가장 가치있는 일이에요. 그 무엇보다 봉사정신으로 그 마음을 실천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 가장 가치있는 세종학교에서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료 교사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 분들도 참 존경스러웠어요. 예전에는 GM에 다니시는 엔지니어분들이 학교 역사 수업을 해주시는 봉사도 해주시고 하시고 학보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 훌륭한 분들을 볼 때마다 힘겹게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함께 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특히 직접 이사장으로 세종학교를 도와주시면서 여러 새로운 틀을 마련하신 홍두표 이사장님이 가장 인상에 남아요.

- 답: 박경혜

남영림 선생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 하나 포용하셨다는 것이 나중에 교장을 하면서 느껴졌고 그런면에서 훌륭한 사람을 많이 만났다는 남영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와닿아요.

- 답: 김영희

맞아요.항상 조용히 모든 의견을 경청하시는 모습에서 때로는 결단을 빨리 내주시길 바라는 조바심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인품이셨기에 세종학교에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 답: 오금주

맞아요. 선생님들끼리 모두 화목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세종학교 교사같은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느낌을 오래 가질 수 있는 것이 세종학교에서의 가장 좋은 기억인 것 같아요.

- 답: 김선미

저도 훌륭한 인품의 선생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남영림 선생님 환갑잔치를 교사들이 깜짝파티로 준비했었다는게 정말 인상에 남아요. 그때 사진이라도 있으면 다시 보고 싶어요, 어딘가에 있었는데 지금 찾아보려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특별 좌담회

- 답: 남영림
제게 있어요. 찾아서 보내주겠어요.

•질문:김선미
남영림 선생님께 30년을 세종학교에 근무하시면서 가장 그리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을 한 분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답: 남영림
어느 한 분만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한 분 이라면 송병옥 선생님이 아닐까 해요.-

- 답: 박경혜, 오금주, 김영희, 김선미
맞아요. 맞아요. 송병옥 선생님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뜨거운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느껴질 정도였고 특히 원색을 좋아하셔서 머리 끝 부터 발 끝까지 맞춰 입고 오시던 멋진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건강 지식도 많으셔서 우리에게 말린 콩이나 볶은 밀치등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나눠 주시고 했던 그 모습이 그림네요.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마음이 참 아팠어요.

•질문: 김선미
남영림 선생님 인생에서 세종학교에 대한 기억을 한 문장으로 말씀하신다면
- 답: 남영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과 김혜자 선생님.정일순선생님등의 특별한 사람들을 만난 곳이지요.

•질문: 김선미
후임 교사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을 해주신다면...
- 답: 김영희
전 세종학교20년을 근무했어요. 그곳에서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서 작은 사회를 경험했어요.아낌없는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답: 박경혜
봉사하는 마음과 누군가는 꼭 해야하는 일이니 나는 했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세요
- 답: 오금주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장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길 바라요.

마무리: 김선미
세종학교 역사에 가장 오래 오래 남으실 분은 우리 남영림 선생님이라고 모두 생각할 것 같아요. 남영림 선생님을 비롯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배울 수 있어서 기쁩습니다. 그리고 세종학교를 통해 여러 훌륭한 분들을 만나 제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해준 뜻 깊은 곳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자녀들이 이곳을 다녀 한국어로 말할 수 있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은 세종학교가 준 큰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고 가까운 날 또 뵈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학교 50주년 특집 설문조사

교사용 질문

1. 내가 만약 세종학교 교장 선생님이 된다면?
2. 10년 후의 세종학교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3.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4. 세종학교의 학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5. 복권에 당첨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6.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7. 수업 시간에 말썽꾸러기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8.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토끼반 박진희 선생님

1. 한국 문화와 역사 관련 체험활동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2. 한국을 사랑하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요?
3. 10년 전 세종학교에서의 가르침에 자부심을 느끼고있지 않을까..
4. 어느 날 내 손가락을 살며시 꼬옥 쥐어주던 소심하고 눈물도 많았던 학생
5. 배움이 절실한 국가나 지역에 학교를 짓고 싶습니다.
6. 배움을 나누는 그 어떤 일들을 또다시 선택할 듯
7. 함께 놀아주고 마음을 연 후에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8. 사랑하는 사람들과 남은 시간을 함께!

나비반 김기원 선생님

1.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을 수준에 맞춰 개설하고 싶다.
2. 더 많이 발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시도하는 멋진 학교가 되어 있을거 같다.
3. 환갑 준비를 하면서 가족여행도 준비를 하고 있을 거 같다.
4. 특정한 학생보다는 모든 학생들 하나 하나가 다 기억에 남는다.
5. 뜻깊은 곳에 기부를 좀 하고, 여행을 다니고 싶다.
6. 다시 태어나지 않고, 본향에서 쉬고 싶다.
7. 아이에게 반장을 시키고, 심부름과 다른 학생을 돕는 일을 맡긴다.
8. 가족들에게 고마웠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이스 라떼를 마시면서 똑 같은 일상을 살 거 같다.

개나리반 박현우 선생님

1. 학생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교장 선생님이 되겠어요!
2. 2세 교포 학생들은 물론이고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도 더 많이 늘어서 세종학교에서 함께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어요.
3. 방방곡곡 세계 여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꼭 할 거예요!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가 너무 많아요
4. 수업 태도가 바르고 성실하게 임하는 친구들이 기억에 남아요. 수업 첫 시간에 자기 이름 쓰는 것도 어려워서 눈물을 보이던 친구가 매주 수업 시간에 바르게 앉아 레이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받아쓰기도 하고 그 많은 숙제들을 다 해오더니 나중에는 짧은 문장도 읽고 정성스럽게 저에게 편지도 써 오더라구요! 정말 대단했어요! 여섯 살 밖에 안된 1학년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해주니 감동스럽고 고맙더라고요!
5. 얼마짜리 복권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왕이면 정말 큰 액수였으면 좋겠어요! 주식도 해보고 서울 한강뷰 아파트도 사볼까요? 하하!
6. 뮤지컬 음악 감독이요! 뮤지컬은 생각만 해도 온몸이 짜릿해진답니다!
7. 세종학교에서 꽤 많고 다양한 말썽꾸러기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처음에는 예쁜 말로 타일러도 보고 혼내기도 해보고 타임 아웃도 해봤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말썽꾸러기 친구의 어머니 카톡을 보여주면서 당장 전화하겠다고 하면 그 어떤 말썽꾸러기들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답니다! 하하! 선생님이 카톡을 보여주기 전에 우리 친구들 잘 해보자구요!
8.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서로 감사 기도를 하고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겠어요.

매화반 이윤경 선생님

1. 아이들을 위한 멋진 세종학교 건물을 준비해서 수업해요
- 2.더 많은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하고 있겠죠
- 3.글쎄요 ... 지금보다는 저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겠죠
- 4.학년말이 되었을때 처음보다 한국어가 많이 늘어서 자신감이 생긴 아이
- 5.즐겁게 세계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 6.정말 내가 좋아하는일을 찾아서 하고 싶어요
- 7.그 아이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어요
- 8.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즐겨요.

난초반 김세정 선생님

1. 세종학교내에서도 실질적인 한국문화 및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주최하고 싶습니다.
2. 10년 후에는 세종학교 자체 건물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배움을 2세 교포 및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3. 세계 여행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4. 모든 학생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들의 푹푹 찜찜한 눈빛들과 모습들이 다 기억에 남습니다.
5. 한국 제주도에 뷰가 멋진 복합식 주택과 건물을 사서 호화롭게 살고 싶네요
6. 이번 생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지만, 비슷한 일을 할 거 같아요.
7. 말쑥꾸러기 학생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이름을 자주 부르며 관심을 주면 나아지더라구요
8.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한 식사를 하며 감사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무궁화반 김희경 선생님

1.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에게 더욱 쉽고 체계적인 역사 교육에 힘쓰고 싶어요.
2.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함께하는 학교로 성장해 아이들이 오고 싶은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 가족들과 여러 곳을 여행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4. 모든 학생들이 기억에 남는데, 교사 첫째 함께했던 학생들이 기억에 남아요. 열정은 가득했으나 미숙했던 교사와 함께 해준 아이들에게 감사할 마음입니다.
5. 복권에 당첨되면 일단 여행을 가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어요.
6. 다시 태어 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네요.
7. 활발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즐거움을 주고 싶네요.
8.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한다 인사하고 안아줄거예요

장미반 윤희란 선생님

1. 세종학교에 가고 싶어서 토요일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세종학교에서 즐겁고 가치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10년후에는 세종학교 자체 건물이 생기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나서 재정적으로도 완전 자립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3. 여유있게 취미 생활을 하면서 (골프, 그림 그리기, 여행...)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기대합니다.
4. 10년이 훨씬 더 지난 일이라서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무궁화반에서 처음 만났던 학생이 생각 납니다. 학기초에는 수줍음이 많은 소심한 학생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학년말이 되었을 때 한국어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된 차승연 학생이 기억 납니다.
5. 평생 소원이었던 세계일주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6. 연예 프로그램 PD를 하고 싶습니다
7. 먼저 기선 제압을 해서 선생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한 다음 수업을 더욱 재미있게 해서 수업에 집중하느라 말쑥을 부릴 틈을 주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웠던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해반 윤경혜 선생님

1. “재미와 학습을 동시에 잡기”에 초점을 맞추어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다. 내가 고민을 하면서도 해결이 안된 부분이어서 그렇다. 또한 어떤 특별반이나 활동이 학생들의 자선이 되고 자존감 형성에 도움이 될 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겠다.
2. 현재 한국의 세계적 위상과 세종학교의 전통과 역량을 볼 때, 교육과정이 더욱 정비되고 규모가 커짐으로써 사회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게 될 것 같다.
3. 무엇이든, 누구든 감싸고 안아주며 서로 성장하는 것을 찾고 즐거워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
4. 매우 내성적인데다 다른 친구들만큼 한글을 잘 읽지는 못하지만 발표에 참여하고 빠짐 없이 수업에 임해 준 학생이 있다.
5. 좋은 수익으로 구제, 치료, 교육 등의 일에 계속 쓰이게 하겠다.
6. 내가 잘 하고 좋아하는 분야를 개발하여(예: 음악) 교육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7. 학생의 문제점을 활용하여 학생이 교사를 돕도록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결과가 성공적이면 그 후 그 학생이 교사의 입장에 서게 될 것 같다..
8.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앞으로의 평안을 기원하겠다.

솔반 오승용 선생님

1. 글썩요.지금 교장 선생님이 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며 계속 미시건의 세종학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2. 지금과 같은 하지만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한글 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곳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3. 막내가 11학년에서 12학년으로 진학하는 학부모가 되었을 나이네요.
4.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누구인가 생각해보니, 그 동안 수업을 했던 모든 학생들의 얼굴이 스쳐지나갑니다. 함께 수업을 했던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네요. 학생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5. 당첨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선 이태리의 Cremona로운 가족이 방문해서 아이들이 마음에 들어하는수제 약기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케냐로 가서 사파리 여행을 하겠습니다.
6. 어떤 직업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세계의 나라들을 돌아가면서 몇년씩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7.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학년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르지 싶습니다.
8. 같이 있지 않은 가족들과 친구 그리고 보고 싶은 지인들과 통화를하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달반 박혜인 선생님

1.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는 교장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10년후에는 더 많은 세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세종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추억을 더 많이 쌓아서 그만큼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 설문조사

4. 정말 모든 학생들이 다 기억에 남아서 한명만 꼽기는 힘듭니다.
5. 복권에 당첨된다면 가족들과 함께 세계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6. 다시 태어난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서 했던 일(직업상담사)을 더 잘해내고 싶습니다.
7. 첫째로 학생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서 학생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여 그것에 맞춰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가족들, 정말 친한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별반 최수나 선생님

1. 세종학교 교장 선생님은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참 어렵겠지만 내가 교장선생님이 된다면 학생들에게 배움과 즐거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
2. 10년 후 세종학교는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이 지역 한인과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역사문화를 가르쳐주는 중심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
3. 여전히 한인 2세들의 교육을 위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다.
4.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종학교에 오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던 학생들. 공부와 더불어 편안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던 졸업반 학생들
5. 세계여행을 더 많이 다닐 것이다.
6. 세계 역사 문화 지리를 연구하여 쉽게 알려주는 사람
7. 재미있으면서 곤란한 질문을 많이하며 친해진다. 그리고 공부 하자!
8.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다.

하늘반 서나영 선생님

1. 더 없이 영광스럽겠지만 저는 반려할 거 같습니다. 한 학교를 이끌어나가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역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ㅠㅠ 나이가 들어도 평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역사가 오래된 만큼 지금도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더 많은 인재들이 배출하여 세종학교를 빛내주고 있을 거 같습니다. 코비드를 이겨내고 대외에 이름을 널리 알려 미국을 대표하는 한글학교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3. 올해 한글학교 교사직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서툴지만, 10년 후에는 좀 더 능숙하고 재미있는 선생님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해 봅니다.
4. 몇 명 되지 않아서 다들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반 만언니 지민이, 똑돌이 결이, 똑순이 도희, 귀여운 솔이, 자유분방한 진영이와 수혁이, 진지하고 과묵한 준기, 만남이 기대되는 희헌이
5.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복권 당첨금으로 가능하지 모르겠지만 큰 건물을 한 채 사서 건물주가 되어 렌트를 받으며 평생 여유있게 호의호식하며 살고 싶습니다.
6.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그때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고 싶습니다.

특별 설문조사

7. 지금 저의 고민이기도 한데 말썽을 피우는 건 아니지만 수업 시간에 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8. 오늘 먹는 3끼는 제일 좋아하는 것 위주로 맛집투어를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조용히 지구의 멸망을 기다릴 거 같아요.

종달새반 이재선 선생님

1. 한글학교 수업이 즐겁고 행복한 세종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2. 미시간에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한글을 배울수 있는 좋은 배움의 터가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3. 더 겸손하고 더 마음이 넓고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4. 수산나 호프는 미국인이고 성인이지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한국문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한국어 배우기에 힘썼습니다.
5. 부모님, 가족들, 형제들에게 평생에 기억할만한 멋진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6. 다시 태어나도 나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키우는 엄마,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7. 일대일로 이야기를 나누고 말썽꾸러기 학생과 좋은 관계를 만들때 서로에게 좋은 수업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8.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학생용 질문

1. 세종학교를 다닌 지 얼마나 되었나요?
2. 매주 토요일 하고 싶은 일은?
3. 세종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그리고 그 이유는?
4. 세종학교에게 하고 싶은 말은?
5. 어른이 되어 한국어 공부를 시킨다면 어떻게 시키겠어요?
6.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7. 한국 음식 중 제일 좋아하는 음식과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8.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은?

<나비반>

김시원

1. 만1년 이상
2.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팀 스포츠
3. 현재 나비반 선생님
4. 한국어를 잊지 않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조부모님과 1:1 테이트, 한국어 TV 시청하기
6. 세종대왕
7. 불고기를 가장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 없음
8. 쥐

김정운

1. 8개월
2. 재미있는 곳에 놀러 가고 싶습니다.
3. 김기원 선생님. 수업이 재미있고 새로운 글자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4. 하고 싶은 말이 아직은 없어요.
5. 아직은 모르겠어요.
6. 엄마, 아빠

7. 좋아하는 음식: 김치, 떡국, 팔죽
- 싫어하는 음식: 닭죽
8. 유령

이기운

1. 4개월
2. 친구와 놀기
3. 김기원 선생님. 예뻐서요.
4. 세종학교에 진짜로 가 보고 싶어요. 줌 말고요.
5. 김기원 선생님처럼 할거예요.
6. 엄마
7. 불고기와 미역국은 좋아요. 잡채는 싫어요.
8. Skeleton

올리비아 첸

1. 1년 반
2. 레고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3. 윤영아 선생님과 박진희 선생님
특히, 박진희 선생님은 첫번째 한글 선생님이셔서 의미가 깊습니다.
4. 간단하고 쉬운 동화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5. 한국 역사책을 읽어보게 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6. 엄마, 아빠
7. 미역국을 좋아합니다. 김치는 매워서 싫어합니다.
8. 귀신, 괴물들

<개나리반>

김성협

1. 3년째(프리,킨더, 1학년 현재)
2. 쉬고싶어요, 그림그리고 싶어요. 유튜브도 보고싶어요. 게임하고 싶어요.

3. 토끼반 박진희 선생님 그냥 좋아요.
4. 학교에서 대면수업하면, 쉬는시간에 친구들과하고 놀고 싶어요.
5. 잘 모르겠어요.
6. 개나리반 박현우 선생님
7. 데친 오징어 / 없음
8. 마트에서 길을 잃어버리는것. 혼자 남겨지는것.

이민채, 이민서

1. 2년 4개월 됐습니다.
2. 친구들이랑 놀고 싶습니다.
3. 나비반 김기원 선생님
4. 없습니다
- 5.
6. 부모님
7. 좋아하는 음식 : 계란후라이, 장조림 싫어하는 음식 : 야채샐러드
8. 귀신, 괴물

<매화반>

박서연

- 1.반년
2. 축구,스케이팅
- 3.이윤경선생님예쁘고착해요
- 4.세종학교좋아요
- 5.재미있게가르칠거예요
- 6.엄마
- 7.떡국/ 없어요
- 8.없어요

최성우

- 1.2년4개월
2. 형하고게임하기

3. 김예미선생님(수업이재미있어요)
- 4.없어요
- 5.몰라요
6. 가족
- 7.불고기/나물
- 8.어두운것

<난초반>

이래나

1. 5년
2. 책읽기
3. 토끼반 선생님이 예뻐서 기억나요
4. 세종학교가 너무 재밌어요
5. 한글학교에 보낼 거예요
6. 엄마
7. 김밥이 쫄 좋아요
8. 공룡이 나를 먹는 것

이은서

1. 삼개월 되었어요
2. 국어하고 싶어요
3. 음악선생님, 왜냐하면 음악을 제일 좋아해서
4. 세종학교를 좋아합니다
5. 세종학교에 보낼게요.
6. 어머니
7. 자장면을 좋아하고, 샐러드를 싫어해요
8. 무서운 영화

이지우

1. 5년차
2. 세종학교가 없으면 축구
3. 박진희 선생님, 늘 친절하셔서
4.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5. 영화보기
- 6. 세종대왕
- 7. 갈비, 매운음식
- 8. 유령 Ghost

정연우

- 1. 4개월
- 2. 축구하고 싶어요
- 3. 김세정 선생님. 잘 가르쳐요
- 4. 엄청 재미있어요
- 5. 시험을 보게해요
- 6. 아빠
- 7. 좋아: 김치밥 / 싫어: 오이
- 8. 주사

<무궁화반>

김이준

- 1. 세종학교에 다닌 지 5년 되었어요.
- 2. 세종학교 방과 후에 만화책을 실컷 읽고 싶어요.
- 3. 박진희, 박현우, 이윤정, 김세정, 김희경 선생님 모두 친절해요.
- 4. 세종학교에서 미술 시간이 더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 5. 펍수 에피소드를 소개해서 재미있게 하고 싶어요.
- 6. 이순신 장군입니다.
- 7.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와 미역국이고, 싫어 하는 것은 오이김치
- 8. 뇌진탕에 걸리는 것이 무서워요.

손하준

- 1. 5년 되었어요.
- 2. 만화랑 책을 읽고 싶어요.
- 3. 김세정 선생님이 기억나요. 아주 친절했어요.
- 4. 쉬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 5. 한국의 이해
- 6. 이태석 신부님
- 7. 좋아하는 음식은 라면, 싫어하는 음식은 떡국
- 8. 움직이는 할로윈데코레이션이랑 전쟁

이라엘

- 1. 5년
- 2. 미술을 하고 싶어요.
- 3. 토끼반 선생님이 착해서 가장 기억해요.
- 4. 미술 시간이 더 많이 있으면 좋아요.
- 5. 액티비티를 많이 할 거예요.
- 6. 할머니
- 7. 만두 > 불고기
- 8. 뱀파이어

한예린

- 1. 5년
- 2. 게임
- 3. 박진희 선생님. 받아쓰기 안해서요.
- 4. 미술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 5. 한국어 알파벳을 잘 가르쳐 줄 거예요.
- 6. 엄마
- 7. 좋아하는 음식은 라면, 싫어하는 음식은 떡볶이
- 8. 무서운 영화

<장미반>

이도겸

- 1. 9월 가을학기부터 다녔어요. 3개월 이상
- 2. 한글 퀴즈게임
- 3. 윤희란 선생님이다. 왜냐하면 5학년 나의 담임선생님이기 때문이다.
- 4. 세상에서 가장 좋은학교이다.
- 5. 2시간만 한국어 공부를 하게한다.

- 6. 이순신 장군
- 7. 좋아하는 음식은 만두, 라면
싫어하는 음식은 조개, 해산물
- 8. 좀비

오지수

- 1. 4년
- 2. 자고 싶어요.
- 3. 윤희란 선생님 (왜냐하면 지금 나의 담임 선생님이기 때문이다.)
- 4. 없어요.
- 5. 한국어 워크북으로 공부를 시켜요.
- 6. Ms. Kiesel 선생님, 엄마, 아빠
- 7. 좋아하는 음식은 송편이고
싫어하는 음식은 없어요.
- 8. 어두운 것

한민혁

- 1. 6년
- 2. 비디오 게임
- 3. 박현우 선생님 (매우 친절했어요.)
- 4. 영화를 보고 싶어요.
- 5. 한국 프로그램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 6. 엄마
- 7. 좋아하는 음식은 라면, 싫어하는 음식은 카레
- 8. 주사 (shot)

<해반>

김이안

- 1. 세종학교를 다닌 지 6년 되었어요.
- 2. 세종학교가 끝난 후에 공원에 가서 낚시를 하고 싶어요.
- 3. 매년 다 다른 선생님들이셨지만 다 다른 스타일이어

서 모든 분들이 기억에 남아요.

- 4.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한글 학교에 다니는 게 자랑스러워요.
- 5. 한국어 공부를 책으로만 하지 않고 재미있고 웃긴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칠 거예요.
- 6. 세계적인 축구 선수 메시 리오넬
- 7. 갈비와 김밥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고 콩국수는 제일 싫어하는 음식입니다.
- 8. 제일 무서워하는것은 죽음이에요.

<솔반>

김하원

- 1. 9년
- 2. 친구들과 게임하고 놀고 싶어요.
- 3. 3학년 난초반 한은영선생님, 좋은 분이셨어요.
- 4. 다른 장소에서 공부해 보고 싶어요.
- 5. 공부를 격일로 시켜요.
- 6. 엄마
- 7. 순두부찌개를 좋아하고, 콩나물은 맛이 없어서 싫어해요.
- 8. 가족과 친구를 잃는 것이 두려워요.

민건홍

- 1. 3학년부터 다녔어요.
- 2. 게임
- 3. 오승용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니까)
- 4. 휴식을 늘리라.
- 5. 안 시킴
- 6. 부모님
- 7. 다 먹지만 싫어하는 것 몇 개 있어요.
- 8. 행복하게 못사는것.

특별 설문조사

박연서

1. 7년
2. 책읽기
3. 3학년 한은영선생님, 5학년 윤희란 선생님이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4. 감사합니다.
5. 한글책을 읽어준다. 세종학교에 보낸다.
6. 할머니
7. 김치찌개 좋아하고, 볶음밥을 싫어해요.
8. 실망시키는것.

서유빈

1. 3년
2. 자는것
3. 3학년 한은영선생님. 재미있었다.
4. 고마웠어.
5. 숙제는 많이 안 내주고,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 게임을 만들겠다.
6. 엄마랑 아빠
7. 비빔면, 탕수육, 알탕, 월남쌈 좋아해요. 생선조림을 싫어해요.
8.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잃는것.

오지효

1. 4년
2. 늦잠자는것
3. 4학년 때 노정환 선생님.
4. 한국에 대해서, 한글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5. 아이를 한글학교에 등록을 시켜서 한글학교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 아빠.
7. 순두부 좋아하고, 국은 싫어요.
8. 어두운 밤이 무서워요.

<달반>

윤수은

1. 10년째예요.
2. 가족과 어디든지 놀러가고 싶어요.
3. 6 학년때 김진수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가르칠때 재미 있었고 정말 친구 같았어요. 선생님이 자기 인생에대한 얘기를 많이해주셔서 선생님과 가까웠던 느낌이 나요. 김진수 선생님은 인내로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인상이 깊었어요.
4.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직접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싶어요.
5. 집에서 한국말을 하고 세종학교 같은 곳에 보내고 싶어요.
6. 저는 부모님을 제일 존경해요.
7. 저는 냉면을 제일 좋아해요. 싫어하는 한국 음식은 없어요.
8. 하나님이나 나의 죄를 용서 하셨는지 확신이 없는 것이 무서워요.

하준형

1. 4-5 년
2. 친구들이랑 게임하기
3. 박해인 선생님. 친절하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4. 빨리 만나서 수업을 할수 있기를
5.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6. 부모님
7. 좋아하는 음식은 간장게장이고, 싫어하는 음식은 동치미
8. 군대

수산나

1. 3년 동안 세종학교에 다녔습니다.
2. 매주 토요일 하고 싶은 일은 친절한 사람들과 같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특별 설문조사

- 3.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이재선 선생님 이셨습니다. 이유는 이 선생님과 2년 동안 제가 공부하는 유일한 학생입니다.
- 4.정말 감사합니다. 외국인 이니까 한글학교에서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 조금 이상하지만 세종학교 선생님 하고 학생들은 저에게 환영하고 도움을 많이 줍니다.
5. 저는 어른입니다. ^^;;
6. 우리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되기가 정말 힘들고 많이 일해야 합니다.
7.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호떡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해산물 입니다.
8. 빠르게 잘 못 배웁니다.

이준헌

1. 유치부때부터 다녔습니다. 9년 다녔습니다.
2. 늦잠 자고 싶어요
3. 기억이 안나요
4. 한글을 배우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5. 세종학교에 보내겠습니다.
6. 엄마를 존경합니다.
7.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김치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한국 음식은 산낙지입니다.
8. 높은데 올라가는것이 무섭습니다.

최서진

1. 7년
2. 비디오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3. 5학년때 선생님께서 비디오게임도 하시고 게임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스티커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4. 오프라인 수업으로 변경해주세요.
5. 나는 성인이 되어서도 절대로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다.
6. 나는 나 자신을 존경한다.

7. 나는 모든 한국 음식을 사랑한다.
8. 나는 다리가 없거나 많은것들 또는 눈이 없거나 많은 어두운 어떤 생물체들이 무섭고 또 무서운 역사가 두렵다.

김초연

1. 9년
2. 집에서 쉬고 싶어요.
3. 모두 다 기억에 남는데 지금 현재 담임 박해인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 친절하게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요.
4. 계속해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5. 현재 나온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시키고, 배운 단어를 사용할수 있게, 교실에서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고 싶다.
6. Camila Cuevas (Animator/Youtuber)
7. 양념치킨을 제일 좋아하고, 콩밥을 싫어해요.
8. 사람이 많은 혼잡한 곳에서 혼자 길을 잃는것

<별반>

윤지환

1. 9년
2. 시간이 제일 많아서 좋아요.
3. 장미반 선생님, 제일 재미있게 가르쳐주셨어요.
4. 저를 한국어를 가르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5. 어디든지 한국학교에 데려다 줄거예요.
6. 저의 누나
7. 김치볶음밥, 돈가스, 한국음식 중에 맛 없는 것은 없어요.
8. 높은 곳

김예원

- 1.8년

- 2.한국어를 더 잘 하기 위한 것
- 3.6학년 선생님. 5월에 우리는 파티를 했어요. 선생님께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 4.세종학교는 한국어를 배우기 좋은 곳이에요.
- 5.워크북과 숙제를 시킬거예요.
- 6.선생님
- 7.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냉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순대
- 8.학교에서 나쁜 점수를 받는 것

이지원

- 1.3년 째 입니다.
- 2.일주일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를 다녀서 주말에는 쉬고 싶습니다.
- 3.달반 선생님이 저의 첫 선생님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수업도 재미있었어요.
- 4.한국어와 문화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장소와 기회가 있다는 것에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 5.한국어를 잘하는 누군가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6.최재형 독립운동가 입니다.
- 7.제일 좋아하는 것은 국수와 생선요리이고 싫어하는 음식은 딱히 없어요.
- 8.벌레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하늘반>

김결

- 1. 6년
- 2. 잠
- 3. 윤희란선생님 / 수업이 재밌었어요
- 4. 아침11시에 시작해 주세요
- 5. 직접 읽고 쓰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 6. 장영실

- 7. 자장면 / 홍합탕
 - 8. 없어요
- 김도희
- 1. 3-4 년
 - 2. 한국 역사 관련
 - 3. 최수나 선생님: 2 년동안 오래 같이 수업했기 때문 입니다.
 - 4. 교과서에 담긴 내용이 몇몇 학생들에겐 쉬울 수 있으니 그런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교과서 내용에서 더 나아가서 수업을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 5. 제가 만약에 제 아이를 한국어 공부를 시킨다면 집에서 계속 한국어를 써서 아이가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늘일 것 같습니다.
 - 6. 윤동주 시인
 - 7. 제일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치킨, 삼겹살, 양념계장
제일 싫어하는 음식: 가지 볶음, 계(찐 거)
 - 8. 귀신

학부모 질문

- 1. 세종학교에 자녀분들을 보내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 2. 세종학교에 자녀분들을 보내시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 3. 자녀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다면 어디를 데려가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 4. 자녀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크길 바라십니까?
- 5. 미시간이 아닌 미국의 타주에 살게 된다면 어디에 살고 싶으신가요?
- 6.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 영화나 책은?
- 7. 앞으로 세종학교에 꼭 바라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8. 학부모님께서 세종학교 선생님이 되신다면 어떤 선생님이로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김인희 (매화반 조수민, 토끼반 조민찬 어머니)

- 1. 등록 절차가 힘들었습니다.
- 2. 아이들이 집중해서 한글을 배우는 자세를 볼 때 제일 보람 있었습니다.
- 3. 전통시장 - 열심히 살아가는 생동감 있는 삶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 4.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 5. 날씨가 따뜻한 곳에서 한번 살아 보고 싶습니다.
- 6. 세계 위인 전기를 읽고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 보고 느끼고 배우길 바랍니다.
- 7. 지금까지 잘 지도해 주시고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세종학교 전통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 8. 과거 역사를 통해 앞으로 미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문현숙 (달반 김초연, 개나리반 김성협 어머니)

- 1. 쉬는 날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 2. 그저 아이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니 좋고, 한글과 한국 문화를 직,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고, 한글을 잊지 않고 유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 3. 서울; 처음으로 방문한다면 당연 서울을 추천합니다. 현대 문화와 옛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고,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변천사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나 박물관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 4. 자기 일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는아이! 무엇을 하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5. 플로리다 이것저것 조건 따지지 않는다면 따뜻한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 6. 니모를 찾아서; 애니이긴 하지만 아빠와 아이가 걱정하고, 역경을 헤쳐가는 모습을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인생은 아름다워;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나라, 다른 형태의 이야기이지만 과거 전쟁을 겪고 힘든 시기가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해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또한 끈끈한 가족애와 희생정신을 잘 그려낸 영화라 기회가 되면 온 가족이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특별 설문조사

7.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대면 수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8. 수업이외에 반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 했으면 합니다. 가끔 한 번씩 옷놀이나 공기놀이 같은 한국 전통 게임 같은 것을 하거나, 뮤지엄 같은 데를 방문해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며 현장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선 (개나리반 이민채, 이민서 어머니)

1. 없습니다.
2. 아이들이 세종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책을 혼자 읽을 수 있어 좋습니다.
3. 에버랜드, 롯데월드 아이들이 놀이공원을 좋아함.
4. 인성이 바른 사람
5. 없습니다.
6. 어린 왕자, 포레스트 검프
7. 없습니다.
8. 없습니다.

안혜영 (매화반 유가현 어머니)

1. 주말에 다른 스케줄을 잡기가 힘든 점입니다.
2. 한국에 있는 할머니와 한글로 카톡을 주고받을 때입니다
3. 전주 한옥마을, 한국의 옛날 전통 집과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4.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미국에서 당당하고 슬기로운 2세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5. 플로리다, 너무 추운 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 나이 들어서 따뜻한 곳에서 은퇴하고 싶습니다.
6. The Greatest Showman,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외모에 주눅 들지 않고 소신 있게 살아가며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그 영화를 추천합니다.
7. 학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현재는 만족하며 잘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희망 사항이 생기면 말씀드리겠습니다
8. 저는 선생님으로서 자질은 부족하지만 과목이 있다면 Art/Craft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최나은 (해반 김이안, 무궁화반 김이준 어머니)

1. 아이들이 팀 스포츠를 하기 때문에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2. 모르던 동요도 알게 되고 역사도 배우면서 한글뿐 아니라 다양한 것을 접하는 것을 보고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 한옥마을에 데려가서 아름다운 전통 한옥들을 직접 보게 하고 싶습니다.
4.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크기를 바랍니다.
5. 미국에 처음 와서 살게 된 곳이 미시간이라서 계속 미시간에 살고 싶습니다.
6. 말모이; 한글을 얼마나 어렵게 지켜냈는지 알 수 있는 영화입니다.
7. 점심시간이나 스낵시간을 줄이고 오전 수업만으로 효율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 설문조사

8. 아이들이 해당하는 학년을 담임으로 맡아서 K-POP 문화와 함께 같이 관심 있는 부분을 공유하면서 가르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화진 (무궁화반 이라엘, 난초반 이레나 어머니)

1. 운전
2. 아이들이 한글책을 읽을 때
3. 큰 뷔페, 다양한 한국 음식을 경험시키고 싶어서
4.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5. 하와이
6. Wonder

김예미 (장미반 김대영, 난초반 김건희 어머니)

1. 아이가 수업을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숙제를 안 하려고 할 때
2. 존댓말 잘 쓸 때, 한국어 사전을 반가워할 때
3. 외할머니 댁. 이사를 하신 후 한 번도 못 가봐서 아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4. 성실하게 자기 일을 즐기어 하는 사람
5. 캘리포니아 바닷가요.
6. 나중에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한국전쟁이나 일제 강점기에 대한 영화를 보여주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의미 있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7. 안전하게 재미있게 수업하려고 선생님들이 애쓰시는 것 압니다. 날이 좋아지고 코비드 숫자가 안정화되면 아이들이 바깥에서 마스크 쓰고라도 함께 노는 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재선 (하늘반 이희현, 달반 이준현, 장미반 이주현 어머니)

1. 매주 토요일마다 다른 액티비티를 하지 못하고 세종학교에 가야 하는점
2. 한국 문화에 자부심을 보일 때
3. 서울, 한국의 수도로서의 위상과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4.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5. 몬타나
6. 미라클
7. 좀 더 다양한 체험과 학습으로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기를

김희경 (솔반 민건홍, 장미반 민지홍 어머니)

1. 토요일에 다른 활동을 못하는 점.
2.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질 때
3. 경포대와 제주도 한라산

특별 설문조사

4. Korean-American으로서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5. 시애틀
6. 아이들에게 '도지'나 '태백산맥'을 추천하고 싶다.
7.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최소연 (달반 최서진 어머니)

1. 특별히 힘든 점이 없었습니다.
2. 서진이 한국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고 한글을 쓰는 기회가 많아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대화도 매끄럽고, 카드를 쓰거나 할 때에도 막힘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한 세종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특별히 돈독해지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3. 서진은 한국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방문하지만, 만약 처음 방문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서진의 외가가 있는 전주의 한옥마을을 추천합니다. 한옥 스테이도 잘 되어 있고, 아기자기한 먹거리, 기념품도 많고, 바로 근처에, 이세계의 영정이 모여져 있고 전주 사고가 있는 경기전이 위치합니다. 만약 전주까지의 이동이 힘들다면 충청로의 한국의 집도 좋습니다. 한국은 사찰 문화가 독특하기 때문에 경치 좋은 산의 사찰 방문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자신이 한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 한국에 대한 자긍심으로, 자신이 하는 일의 영역에서 인정받고 돋보이는 전문가가 되길 바랍니다.
5. 캘리포니아, 경쟁도 치열하겠지만 기회도 많을 것 같습니다.
6. 영화는 아니지만 중학생 이상의 학생이라면, '미스터 션샤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 미국, 일본의 관계도 잘 보여주고, 독립운동의 면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까지 완벽한 이병헌의 모습에서 언어의 힘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책은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마법천자문 추천합니다. 한국사 대모험은 전반적인 한국사 이해를 돕고, 마법천자문은 간단한 한자 공부에 꽤 도움이 됩니다.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매해 출간되는 트렌드 코리아 추천합니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국의 매해 트렌드 분석, 예상이 미국의 시장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경향들에 대한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7. 코로나 시국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꼭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학교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8. 역사와 문화에 대한 독서 토론, TV 시청 후 토론? 이런 부분이 떠오르네요^^

김현희 (달반 윤수은 어머니)

1. 세종학교 스케줄과 다른 activity 와 겹치는 것입니다.
2. 계속 한국말을 듣고 말할 수 있고 글짓기 같은 한국어 실력이 느는 걸 볼 때 보람 있습니다.
3. 명동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 이유는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을 볼 수 있어서 한국이 얼마나 국제적인 나라인지 알려줄 수 있어서입니다.
4. 소수민족임에도 한국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며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5.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싶습니다.
6. 파워 바이블

특별 설문조사

7.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하고, 가능하다면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나서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게 수월해지면 좋겠습니다.
8. 한국의 전통 놀이문화를 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들을 잘 알고 즐길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싶습니다.

박진희 (하늘반 김결, 별반 김단 어머니)

1. 아이들이 지쳐보여도 주말에 늦잠을 재울 수 없을 때가 안쓰러워요.
2. 부모는 물론 한국에 계신 할머니와 한글로 텍스트 주고받을 때면 참 뿌듯합니다.
3. 판문점 / 남북한 분단의 역사와 현장을 보여주고 싶어요.
4.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5. 콜로라도
6. 파리대왕(윌리엄 골딩저)
7. 없습니다.

윤영아(난초반 이지우, 장미반 이준우 어머니)

1. ride주기
2. 한글이 느는 것이 보일 때
3. 제주도. 아름다운 자연
4. 진실되고, 베풀 줄 아는 사람
5. 플로리다
6. 빌리 엘리어트
7.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8. 3-5학년 담임

김미연 (매화반 최성우 어머니)

1. 매주 토요일마다 다른 일정의 제약을 받으며, 세종학교 등교를 해야 했던 일
2. 아이가 처음으로 한글로 된 책을 읽고, 편지를 써주었을 때
3. 경주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4. 미국에 살게 되더라도 본인이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
5. 조지아
6. 전래동화
- 7.
8. 역사(한국의 역사)

신혜영 (매화반 박서연, 해반 박재연 어머니)

1. 토요일에 있는 스포츠 활동과 세종학교 수업이 겹치는 일
2. 아이의 한글 실력이 느는 일
3. 제주도 한국 방문을 처음 했을 때 갔던 곳인데 기억에 많이 남아 합니다
4. American Korean 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아이가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5. 캘리포니아
6. 미나리
7. 이전을 한다면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 역사 선생님이로 쉽고 재미있는 역사 공부를 같이하고 싶습니다.

오승용 (솔반 오지효, 장미반 오지수, 매화반 오소망)

1. 아이들이 토요일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2. 막내 오소망이 세종학교를 통해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한글에 익숙하지 않았던 오지수가 한글로 문장을 만들고 쓸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3. 아이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된다면,엄마 아빠가 자란 곳(초등학교등)과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와 판문점을 방문하고 싶습니다.부모님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고,아이들의 뿌리(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더불어 분단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4. 미국에 살지만 본인들이Korean American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아이들이 성장하여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한글을 배우게 하는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5. 뉴욕 혹은 보스톤
6. 한국 영화 모가디슈
7. 지금처럼 개교100년을 맞이하며, 미시건에서 우리 아이들의 한글 교육의 장으로 계속 역할을 감당해주시를 바랍니다.
8. 학생들이 저를 생각할 때 학생들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선생님이로,다양한 한국 영화를 통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어요.



김신형 초대 이사장과 어린이들 정말 곱다! 한복 1976. 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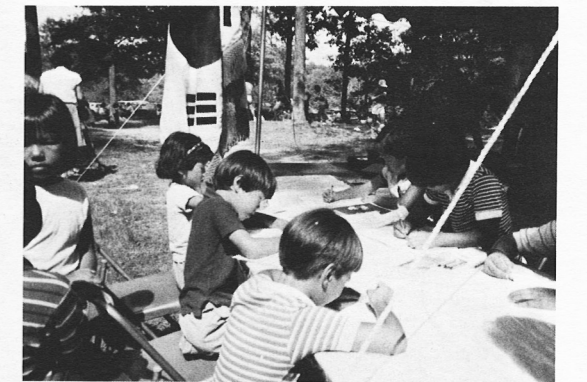


극동 축제에도 나갔다. 1979. 7.



고국에서 온 어린친사들과 함께 State Fair에서 1976. 9. 6.

광복절 Picnic! 가슴에 태극기가 곱다. 1976. 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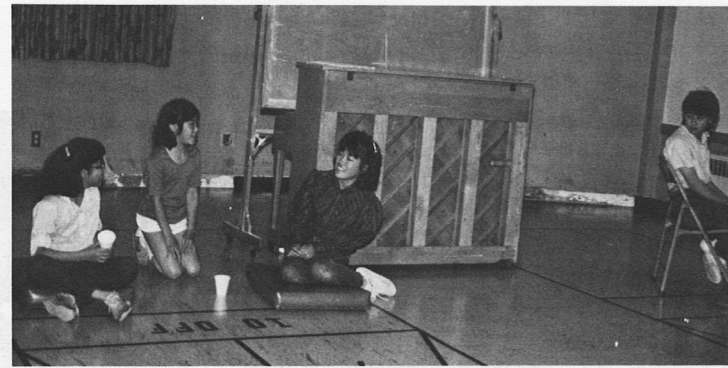
어린이 장원은 누구일까? 1978. 8. 15



창립 9주년! 조출한 기념식 1981. 3.



2-3학년 합창. 잠시 노래를 쉬며 지휘자를 살핀다. 1983. 6. 1



1983. 6. 11
고등반 학생들의
한미문화 비교 연극에서
한국편
“애 엄마 친구에게 인사드리렴.”
“예 안녕하세요?”
“그래 너 참 인사도 잘 하고
착하구나, 공부도 잘 하겠지?”



우리는 오른 쪽 또는 왼 쪽으로 잔다.
1984. 6. 9. 유치반의 노래와 유희



♪ 뚝뚝 뚝뚝새 논에서 울때 ♪
1984. 6. 9 3-4학년 합창(동부)



4-5학년 합창(서부) 1984. 6. 9.

1983. 6. 11



이춘재 교장팀의 즐겁던 때! 학예회를 끝내고



1984. 6. 9 참 잘 춘다. 고정이도 곱다.



1986. 학예회 부채춤

1985. 12. 성탄 축하회



동서부 무용 선생님들의 춘향전



1986. 6.
세종
대규모 어린이 합창단



1985. 6.
악식 세종 Orchestra

1985. 6. 8.



세종학교
첫 초, 중, 고등부
공식 졸업생을 내다.
졸업장을 친 모습이
대견하긴 한데...

1986. 6.



입양부모를 위한 한국요리 강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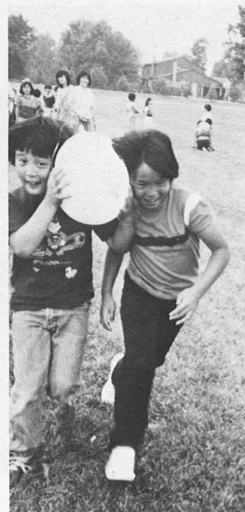
태권도 시범

1986. 6. 졸업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장수무대
미국인 여느리가 이채롭다.

1986. 6.



발뭉고 같이 뛰기, 하나 둘 하나 둘

풍선이 떨어져도 안된다.
터져도 안된다.



Boulan Park 중학교, 우리들의 첫방이다.

1987. 3. 7.



개교 15주년 기념식 후
윤인광 이사장과 남영령 교장선생님



새미 안인학교 협의회



▲ 세종학교에서 직접 제작한 작품을 가지고 참가



▲ 「죽석 장지랑」- 미시간 대표





“출발하기 전에 다 함께 찍어요.”



배스타고 이제 4시간 가야 돼요.

“세종 Shirts가 멋있죠?”



집은 추력으로 가고요.

아침 9시의 한국어 시간



▲ “영치기 영차” 쫓았던 힘까지 힘차.



▲ “잘 했어요” “감사합니다”



최은숙 이사장
남영걸 교장



▲ 나비만 학생들 - 생일 Cake 불고여



▲ 2002. 3.2. 30주년 기념 노래



▲ 1997. 3. 개교기념일 토끼반 - 남남 점심과 함께 케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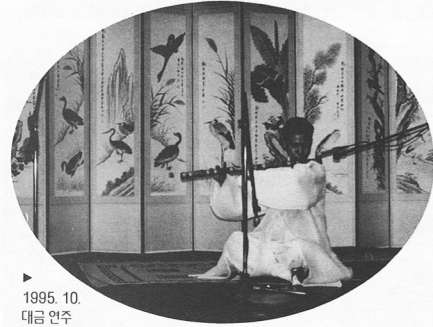
▲ 생일 케크 앞에서



87년 박범수 집 이사장 / 윤인광 이사장
남영걸 교장 / 이춘재 전 교장
홍우표 이사



▲ 세종학교 첫 학예회



▶ 1995. 10. 대금 연주



▲ 1994. 10. 「판소리 공연



◀ 판소리 강연도 함께 (복장단을 열심히 연습해요)



▲ 1996. 10. 「한국 가곡의 밤」



◀ 모금 파티 침수에 수고해 주시는 이사님 사모님들과 경매에 붙인 그림들



▲ 2001. 10. 베일린 첼로 / 원유석 피아노 반주 / 정연옥 가곡



▲ 96년 한국 가곡의 밤 끝내고서



▲ 김만걸 교수와 박 Arthur 역사 문학의 밤 마치고



◀ 2000학년도 학생들과 학부모 임원, 선생님들



▲ 초등부 졸업생들



▲ 거근자들



▲ 자유회 - 뷔에서 먹으니 낯낯 맛있지?



▲ 우리들 동신만큼 예쁘죠?



▲ 운동회 열차기 행사 우리편이 이긴다



▲ 자, 이제 고기가 익으려 합니다.



◀ Boulan park 세종 자유회 장소



▲ 세종학교 첫 자유회 이돈희 교장과

◀ 운동회 - 이! 피자 따먹기 어렵네







1대 교장 김신형 (1972)

- 1972년 3월 4일 세종학교 개교
- 1회 학예회 및 야유회

2대교장 이돈희 (1973)

- 세종소식 1호~4호 발행

3대교장 이용선 (1974)

- 어린이 잡지 1호~4호 발간
- 극동 축제 참가

4대교장 김태현 (1976)

- 세종캠프 시작
- 선명회 합창단 공연 (1977/9)

5대교장 박현자 (1978)

- 비영리 단체 등록 (1978/4)
- 제1회 세종세미나 개최 (1978)
- 제2회 세종세미나 개최 (1979)
- 세종학교 교가 제작 (조규홍 작사, 박재훈 작곡, 1981/3)

6대교장 이춘재 (1982)

- Camp Reunion 시작
- PSAT, SAT반 신설
- 교사 이전 (Westminister Church에서 Southfield의 Britney중학교)
- 1983 동부 캠퍼스 신설 (연합 감리교회 1983/1)
- 세종학교 주최 “박인수 독창회” (1983/2)
- 동부 캠퍼스, Troy의 Boulan Park 중학교로 이전 (1983/9)
- 청소년을 위한 추석파티 시작 (1985/12)
- Southfield Festival에 참가 (1985/5)
- 서부 캠퍼스 Lathrup 고등학교로 이전 (1985/9)
- 세종상 신설 (3명 수상 1985/10)
- 동서부 합동 수업및 성탄 파티 (1985/12)

7대교장 남영림 (1986)

- Boulan Park 중학교로 동서부 캠퍼스 통합 (1986/1)
- 장로교 문화학교와 공동 세미나 개최 (강사: 김유미, 오현주 선생 1986)
- 세종소식 속간 (제5호), 년 2회 발간 (1986)
- 개교 15주년 기념식 및 행사 (1987)
- Korean Synposium에 참가 박물관 견학 (1987)
- 창립 15주년 기념회지 발간 (1987)
- 대학 진학 세미나 (강사:김주희 박사, 1987)
- 세종학교 주최 “이대욱, 문용희 교수 부부 피아노 연주회” (1988)
- 세종 Quilt완성, 세종 문집 1호 발간 (1988)
- 봄맞이 음악잔치 (이대욱, 문용희, Fu Wang, O. Carman, 정한희, 1989)
- 1회 태극마을 방문 새해인사 (1990)
- 개교 20주년 및 삼일절 기념식 (1992)
- 미시간 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발족 (1992)
- 세종 예술제개교 20주년 기념회지 발간, 이야기 대회 시작 (1992)
- 글짓기 대회 시작 (1993)
- 국악의 향연 (1994)
- 학국 가곡의 밤 (이지연, 최하진, 1996)
- SAT 한국어 모의 고사실시 (1997)
- 세종학교 25주년 기념지 발간 (1997)
- 동요 부르기 대회시작 (1997)
- 기금모음 역사의 밤 (John Duncan 교수, 1998)
- 세종소식 30호 (1999)
- 모금파티-역사의 밤 (강만길, 박경재 교수)
- 미시간 골프 협회 기금 (1999)
- 가곡의 밤 (정연목, 김수연, 2000)
- 제 24회 모금파티 가곡의 밤-정연목, 배일환 (2001)
- 불란중학교 교사 점심대접 예술제 (세종학교의 하루, 2000)
- 30주년 기념치 발간 (16호 문집, 2002)

8대교장 박경혜 (2003)

- 기금모음, 친구클럽 시작 (2007/9)
- 학부모 행사-오미령 (2009) Parenting
- 교사이전 (Boulan Middle에서 Detroit Country Day School로 2007/9)
- 개교 35주년 기념 문집 (2007)

- 미시간 한국학교의 날 시작 (2008)
- 학부모 초청 재정 세미나 개최 (2008)
- 입양아 설날잔치 참여 (2008)
- 세종 골든벨 대회 시작 (2008)

9대 교장 김선미 (2009)

- 기금모음 행사 (이대옥 박사 가족 음악회, 2009/9)
 - 청와대 푸른누리 어린이 신문 기자로 세종학교 학생 참여 시작 (2009)
 - 난타시작 (2009)
 - 학부모 교실-자녀를 위한 글짓기 수업 (2009)
 - 기금모음 행사 (무용극 선녀와 나무꾼, 2010/9)
 - 학부모 교실-제정 생활도움주기, 코메리카 뱅크 (2010)
 - 개교 40주년 기념 기금모음 음악회 (장수진, 김미현, 김해준, 김용민, 정인숙, Becca Shipan)와 동문 스티브 연 초대 (2011/9)
 - 청와대 푸른누리 어린이 기자- 최하영, 김남효, 김지환, 이수지 (2011)
 - K-rise Club 시작 (2011)
 - 학부모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함도은 (2012)
 - 개교40주년 기념문집 발간 (2012)
 - 고려대학교 씬머캠프 장학금 지급 - 최원형 참여 (2012)
 - University of Michigan 제1회 Korean Bowl 참여, 고등부 1등, 중등부 1,2,3등 수상 (2012/5)
 - 35회 세종학교 기금모음 음악회 한정민(첼로), 김승미(플룻), 임규혜(피아노), 이은정(피아노), Janet Lyu(바이올린) (2012/9/29)
 - 세종학교 웹사이트 및 주소 misaejongschool.org로 업데이트 (2013/6)
 - 2013 학부모 교실 - 자존감이 큰 아이로 내 아이 키우기 (2013/11/23) (강사) 윤진아 Wayne대학 교수
 - 36회 세종학교 기금모음 행사 (2013/11/23) (안나현, 정재은, 안예람, 이사론, 홍예은)
 - 시카고 교육원 주최 에세이 경연대회에서 김혜진(금상), 안예람(동상) 수상 (2013/12)
 - 2010년 난타 수업 시작
 - 2014년~2015년 세종역사문화 캠프 실시
 - 2017년 세종학교 캠퍼스 이전(Farmington Hills)
 - 2021년 제1회 세종 Korean Spelling Bee대회 실시(우승:민건홍)
 - 2020~21학년도 2학기 부터 2021~22학년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사태로 비대면 수업 진행
 - 202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주관 세계한민족대사전에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등재
 - 2021년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교훈 만들기 대회-윤지환 우승
- 새 교훈-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자 세종 꿈나무



